한국학교를 통한 교회선교전략

The Study On Church Mission Strategy of Korean School

By

BAEK, NAM JUN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Chula Vista, San Diego

2013

ABSTRACT

The Study On Church Mission Strategy of Korean School

BY

BAEK, NAM JUN

This thesis is based on the mission−strategy proposition through management of Korean school.

However first we can see its included in big category called Christianity education.

Hereupon this thesis attach importance to understanding and point of view about Christianity education, and in addition stipulate help and guide the students to be a responsible disciple of Christ, which that inclusive object of cultural preaching and mission’s Christianity education through Korean school’s cultural−education program.

That is Christ’s disciple means understand Christ and the heaven’s vision, dedicate himself; responsible disciple answer the command from the heaven, and start to accomplish the commands in their life by grace of God.

Likewise Korean school education is ultimately make students as a responsible disciple of Christ.

Not a simply studying knowledge, by that make them dedicate the vision of the heaven in their life.

Through Christianity education, students are blessed in foreign, serve foreigners with attitude of greeting, such things are corresponding with inclusive object of Christianity education.

One of Christianity education, church’ s Korean school is teach and educate Korean, and very important opportunity to open the door of mission, spread Korean culture, and preparing a chance to preaching the gospel naturally.

If you see the objects of this essay, it shows clearly and discriminative education object of normal public school, and education object of Christianity.

Be a blessing and having a attitude of greeting, contains these two important contents, also usually students are making language mistakes easily during practice of language, also mentioned about offer them the open-minded place to nevertheless make feel they’ re respecting, so they cannot be depressed.

Also developing language and conversation skills, so they can share with another people who have different culture about we’ re included in Jesus Christ.

And proposing without omitting to study about structure and foundation of foreign language in diversity, which God created

This thesis is Listed the objects below about education that be based on View of Christianity

First, Christianity education have to objectify and plan the students' each their development of growth of them.

Second, education of Korean should objectify the development of students about understanding foreign cultures and loving their neighbors.

Third, Christianity education's inclusive object is make student answer the proper calling of God through growth of language skills, and another is preparing them as a disciple, who full of duty of calling can preaching God's words.

Fourth, Proposing the way, how we can make the mission's bridge by church and Korean school.

감사의 글

2010년 8월 초 설레임과 두려움을 안고 미국 뉴욕으로 도미하여 뉴욕신학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리 평탄치 만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들과 함께 공부하며 한계를 느끼기도 했고, 목회 사역만 하다 다시 공부를 하려니 몸에 익숙하지 않아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여러분들이 계셔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늘 기도해주시고 제 편으로 든든하게 계셔주신 아버지 백대봉님과 언제나 따뜻하게 사랑해주시고 저의 결정을 지지해주신 사랑하는 어머니 장진숙님,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저를 믿고 언제나 제게 신경을 써준 제 인생의 가장 친한 벗인 사랑하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며 받은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외에도 학교생활과 공부의 모든 것을 상담해 주시고 지도를 아낌없이 해주시는 대학원 박사 과정의 디렉터이신 백창건 교수님을 비롯하여 뉴욕신학대학원의 Dr, Lundy와 교직원이신 그레이스 김, 배세진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뉴욕신학대학원에 들어온 것은 개인적으로는 큰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입학했을 때의 제 모습과 현재의 제 모습을 비교한다면, 많은 것이 변화되고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이뤄지게 된 바탕에는 여러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강의와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받았

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몇 번의 기회들을 통해 프로젝트와 논문 발표와 같은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는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조언과 도움이 있었지만, 특별한 분들이 있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진심으로 걱정해주시고 조언해주신 심유미님, 조오남님, 제니퍼님의 Site Team이 없었다면 아마 논문을 쓰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논문을 쓰며 필요한 많은 선행 연구 자료들과 연관 자료들을 모두 찾아주고 논문을 쓰는 데에도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최정님과 김인양님이 없었다면 논문을 작성하는 시간은 훨씬 더 걸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막상 감사의 글을 적고 나니 이렇게 많은 분들의 격려와 도움 속에서 학교를 끝마쳤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지난 시간들은 앞으로의 제 인생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분들께 여러 신세를 지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국생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들을 가슴에 안고 감사함을 갖고 잊지 않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세상에 보탬이 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BLE OF CONTENTS

LIST OF TABLES

LIST OF FIGURES

I. 미주 한인교회의 한국학교의 현황

1. 연구 대상과 범위

1) 지역적 특성

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스페인어로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뜻의 출라비스타로 인구 규모로 볼 때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가주 재무부가 2010년 연방센서스 자료기준으로 24만 3916명이 살고 있다.
최근 수년간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가장 활발한 개발 붐이 불었던 출라비스타는 805번 프리웨이를 사이에 두고 서쪽의 구 시가지와 동쪽의 신흥 개발지구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 도시의 동부지역은 125번 주 고속도로 등이 최근 개통되면서 힘찬 개발 드라이브가 걸린 상태다.
레몬을 주로 경작하던 출라비스타 지역이 독립한 것은 1911년의 일로 당시 피플즈 스테이트 은행 사무실에서 시 이사회의 회장으로 E.T. 스미스를 선출한 것이 현 시정부의 모체가 됐다. 출라비스타 시가 본격적인 부흥기를 맞은 것은 세계 제2차 대전이 계기가 됐다. 항공기 제작회사였던 로어 에어 크래프트사가 이 곳에 둥지를 틀었는데 이 회사는 한때 9000여명을 고용할 정도로 지역 산업의 중심부 역할을 해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이 도시에는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와 가족들이 그대로 자리를 잡으며 오늘날 카운티 제 2대 도시로서의 기틀을 잡게 된다.

출라비스타의 두 번째 융성기는 미국과 멕시코 간에 맺어진 자유무역협정(NAFTA)이 계기가 된다. NAFTA는 90년대 초반 체결됐지만 이미 그 전부터 국경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바하 캘리포니아의 산업지구와 연결하는 독특한 산업과 문화가 자리 잡게 된다. 출라비스타에는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티후아나 지역에 있는 지역상사에 근무하는 가족을 두고 있다.[1]

2010년 4월 현재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한인인구는 2만7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일 연방 센서스 국이 발표한 2010년도 인구센서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한인인구는 10년 전 실시된 인구센서스 결과에 비해 8734명이 증가했다. 10년 사이 72.8%가 늘어난 셈이다.

센서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카운티 최대의 도시인 샌디에이고 시로 1만 3559명이 살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이곳 출라비스타로 202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92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된 칼스배드가 3위를 차지했다. 또 오션사이드(609명),샌마르코스(410명),에스콘디도(382명),비스타(343명),엔시니타스(218명) 등 북부지역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상위권에 포진, 북부 카운티 한인 커뮤니티의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짐작하게 해주고 있다.

18개 독립도시를 제외한 비 독립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1428명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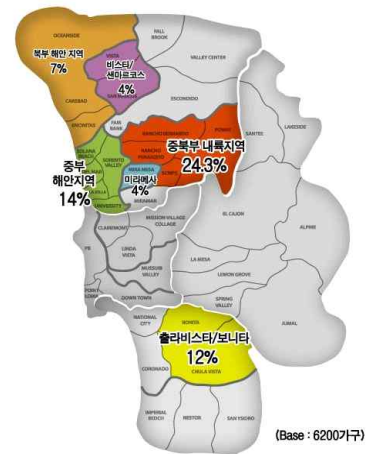
---

[1] http://www.gosdkorea.com/dg/view.php?&ss[fc]=1&bbs_id=area&page=4&doc_num=346 (accessed February 7, 2013)

샌디에이고 카운티 한인인구는 전체인구의 0.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양계 중 필리핀계가 14만6618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며 중국계(4만9395명)와 베트남계(4만4202명)가 그 뒤에 랭크됐다.

일본계 주민의 수는 1만8687명으로 한인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이번 센서스 자료조사 결과 한인인구수는 20,738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한인인구수 (3만3천명~3만7천명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인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센서스 참여율과 학생 및 주재원, 중 단기 체류자가 많은 점을 감안 한다면 센서스 자료에 나오는 수치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2]

(그림 1. Map of San Diego)

2) 출라비스타 아름다운 교회 배경

본 교회 아름다운교회(Areumdaun Church)는 미 남서부 최남단에 San Diego, Chula Vista에 자리한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교단에 속한 교회이다. 아름다운 교회는 젊은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평신도가 목회하는 건강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예배에 감격이 있고, 말씀의 깊이가 있으며, 기도에 열정이

[2] http://www.gosdkorea.com/dg/view.php?&ss[fc]=1&bbs_id=area&page=4&doc_num=348 (accessed February 7, 2013)

있는 교회이다. 출라비스타 아름다운 교회는 손진락 전 담임 목사의 이임 후에 여러 문제로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여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이다. 손목사의 후임으로는 뉴욕 선한교회 담임목사로 18년 동안 섬긴 심종훈 목사가 출라비스타 아름다운 교회 제5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심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표어 아래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구호로 다시 도약하는 교회가 되기를 피력하였다. 회복으로 나아가는 교회이고 지역을 섬기며 부흥을 꿈꾸는 교회이다.

3) 비전 제시

본 교회는 출라비스타 지역에서 10여 년간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2011년 전 담임목사님의 이임 후와 6-7개월의 공백 속에 다소 주춤하였던 교회가 2012년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섬김의 자세로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샌디에이고 지역 라디오방송과 한인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칼럼과 설교 및 글을 올리면서 교회를 홍보하고, 대형교회의 위치가 샌디에이고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주거지역은 출라비스타 지역이라, 지역 교회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지역을 섬기고 있다. 교육적으로는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한국학교를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시간을 변경하고 시간대를 늘려 지역아동에게 질 높은 한국어 교육에 힘쓰고 있고, 수요 무료 영어교실을 운영해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성인들에게 배움의 기

회를 주고 있다. 또한 멕시코와 근접한 샌디에이고의 지역 특성상 멕시코 단기선교를 통해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적, 생활적 후원과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오래된 집을 개보수하거나 중고 물품들을 싸게 구입하여 멕시코 현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고 정기적인 생활구호를 도와주고 있다. 그 중에 본 논문의 주제와 밀접한 한국학교는 지역 주민의 좋은 이미지로 처음 학교를 개교하여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교회를 알리며 소개하고 있다.

본 교회의 한국학교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현지인과의 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을 이룬 한인 가족들이 많고, 한국의 문화와 미국/멕시코의 문화,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를 통한 문화적 이질감과 동질감이 공존하는 독특한 상황의 가정이 많이 있다. 문화적인 교류와 문화 전도 및 교육에 대한 교회의 선교전략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본 교회도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생활과 다문화 언어가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회의 교육적인 선교전략이 필요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기업들이 멕시코 티후아나에 설립이 되면 더 많은 주재원과 한국인의 사업 확장과 멕시코와의 무역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많은 문화 교류가 생겨날 것을 대비하여 교회가 지역선교를 준비해 간다면 많은 선교적 부흥을 이룰 것이다.

또한 본문의 주제와 같이 한글의 교육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많은 요구에 부응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2. 연구의 목적

한국어 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언어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언어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고, 그것을 전달 및 계승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곧 그 언어권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언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을 뜻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의 언어학자인 Sapia와 Whorf는 언어적 상대성[3]의 가설을 제기하면서 문화와 언어의 밀접한 관계를 지적했다. 이 가설에 의하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사고방식이나 지식체계가 달라지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양식도 달라진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한 사회에서 사용되는 문화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Volosinov[4]은 한 개인의 사상이 그의 언어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은 그 동안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반영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문화나 문화 산물에 더 중점을 두어 왔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수업이 이루어져 학습자들은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

---

[3]Sapir-Whorf Hypothesis, 미국의 언어학자 및 인류학자인 Edward Sapia(1884-1939)와 그의 제자Benjamin Lee Whorf(1987-1941)가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 제창한 가설로 언어적 상대성(Linguistic relativity)과 언어적 결정론(Linguistic determinism)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적 상대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화가 언어에서 발전했다는 것을 가정하고,'사람의 마음의 작용은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과정으로 언어적 결정론을 설명하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는 우리가 말하는 언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strong version과 weak version이 제시되 어 있는데,strong version의 언어적 결정론은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의미를 언급하는 것이며,weak version은 언어가 부분적으로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4]Voloshinov,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1973).

화 교육을 너무 피상적으로 접하게 되거나 고급문화를 접하게 되어 지루해 하는 등, 문화 교육에 대한 흥미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이 등장하면서 언어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을 언어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문화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한국 문화 교육이 한국 사회에 대한 선입관에서 오는 부정적 태도[5]나 문화충격[6]의 극복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어가 한국인의 세계관과 생활양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분리될 수 없다며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학교의 문화교육을 집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회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한국학교의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는 그 설립이념과 정신을 잃지 않고 발전해 가기 위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방향설정과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이민교회의 한국학교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학교가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교육하며 문화교육 속에 선교적 전략을 마련하여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선교의 장을 넓혀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5]Brown(1980)은 목표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목표어의 습득을 유리하게 하며 부정적 태도는 동기를 약화시켜 결국 목표어에 숙달되기가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

[6]배두본(1990)은 문화충격(culture shock)이란 사회적 접촉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느끼고 이해된 기호와 상징들을 상실하게 되어 느끼는 불안감인데 문화 변용(acculturation)과정에서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외국어 학습 초기에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데, 모든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나 문화에 대하여 긍정적 경험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충격을 느끼게 된다.

1) 연구의 필요성과 문화교육 방법

한국학교 현장에서의 문화 교육 방법[7]은 다양하나 아직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학교마다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질적인 성장과는 다르게 과거의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수준에서 큰 성과는 많지 않다.
또한 기관과 이민교회, 한국학교에 따라 문화에 대한 교육방법과 교육범위의 차이가 크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교육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함과 동시에 기관마다 통일성을 갖고 학생과 교사를 위한 문화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이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교회의 부설 한국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더 나아가 한국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문화 전도의 장을 열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증대하는 데 의의를 둔다.
또한 교회의 가르침이 기독교적 가르침이 되게 하려면, 교화 내용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섬기는 능력을 기르는 데 공헌해야 한다.[8]

---

[7]문화 교육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면 외국어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문화 동화(Culture Assimilator),문화 설명(Culture Aside),문화 토론(Culture Cluster),직감소 반응(Audio-Motor Unit),단막극(Mini Drama),노래(Song),신문과 잡지활용(Newspapers and Magazine), 게시판(Bulletin board), 학생계획(Students Projects), 문화 캡슐(Culture Capsules Short Essays)등의 방법과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교육할 수 있는 속놀이 그림보고 이야기 만들기,전래동화 구연하기,윷놀이,만화 읽고 제목 정하기,고민 상담하기,언어 표현 비교기, 한국노래 부르기,인형놀이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이해를 높일 수 있다.

[8]John Van Dyk, *The Craft of Christian Teaching*,김성수역,*가르침은 예술이다*(서울: IVP,1994), 96.

3. 연구의 목표(Object)

1) 의식 변화 목표

오늘날 현대 사회의 공통의 과제는 공영으로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국민국가나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며, 민족과 종교 그리고 언어와 이념의 벽을 넘어 다양성이 융화될 수 있는 다원주의적 시민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다원주의적 시민사회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토양에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을 예로 들 수 있는데, Nathan Glazer는 그의 저서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들은 각각 자기 종족의 문화를 배우고, 자기 종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또한 다른 종족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

또한 뱅크스[10]는 미국을 진정으로 구하는 길은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인종들 사이에 요구되는 두 가지 요소, 즉 서로 힘을 공유하는 것과 자기 종족에서 시작하여 국가에 이르게 되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게다가 이것은 결국 다문화주의 교육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하였다[11].

뱅크스의 이론을 따르자면, 미국에 사는 한국 교포 어린이들은 먼저 한국의 문화와

---

[9]네이션 글레이저(Nathan Glazer),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We are all multiculturalists now)*(서울: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서종남,최현미 엮음,2009),9.

[10]뱅크스(James A. Banks), *다문화교육 입문*(서울:아카데미프레스,2008),14.

[11]권덕원, *다문화주의 음악교육론과 국악교육*(부산:음악과문화 2호,2000),49-76.

언어를 익혀서 한국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후에 다른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익혀 가면서 다른 민족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들은 여러 인종이 모여서 이루어진 미국 사회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 그는 자기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는 건강한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뱅크스의 다문화주의는 언뜻 보기에 어떤 문화도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실제 현상에 들어가면, 그 중심에 어떤 문화가 있게 된다. 또한 그 문화들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즉 한국 교포 어린이들에게는 한국 문화가 중심이고, 미국에 사는 중국 어린이들은 중국 문화를 중심으로 놓게 되며,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 어린이들은 또한 그 중심에 아프리카 문화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어의 교육은 문화와 직결되고 더 나아가 한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 이민사회 초창기 시절 영어중심과 영어 우월주의적인 경향이 강해 이민 1세대들이 한국어 교육보다는 영어교육에 치우친 나머지 의사소통의 단절과 1.5세대와 2세대들도 혼란기를 겪으며, 정체성의 대한 질문과 문화의 단절 속에서 오는 괴리감을 경험했다. 이에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은 제 2외국어라는 개념의 틀을 벗어나 다문화와 다민족이 사는 미국에서 더욱 더 사회 안에 잘 정착하고, 각각 개인의 정체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긍정적인 사회일원이 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차이가 있지만 오히려 그 차이를 통한 각각의 개성이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는 매개체로의 한국어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인과 민족의 정체성확립에서 오는 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일원임을 자각

하는 중요한 도구인 언어교육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다문화 공존시대이고 서로 시계의 부품처럼 각자 존중하며 사회를 이끌어가는 문화 공동체가 되어간다. 이 때문에 더욱 더 언어교육은 중요하다.

2) 행동 및 실천 변화

John Bolt는 기독교 학교 졸업생들의 가치관이 공립학교를 졸업한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이 거의 없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기독교 학교가 모든 과목을 기독교적 관점에 입각해서 독특하게 가르치는 고유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받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12]

즉 교수기법이나 수업내용, 학생 행동, 직업적 목표에 있어 일반적인 학교와 별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실정은 기존의 기독교 교사 양성이나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외국어 교과와 같이 일반 교과를 어떻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통합하고 분석 연구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물론 한국학교의 작은 학교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다를 수 있지만 기독교학교의 한 부분으로써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 논문의 연구를 통해 교회 학교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 커리큘럼을 수립하고 교사들을 교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

[12]John Bolt, The Christian Story and the Christian School, 이정순 역,*이야기가 있는 학교*(서울: IVP, 2006),139.

나아가 교회의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접근 방법 중 한국학교를 통한 선교 교육적 고찰과 선교 문화적 고찰을 통한 교회 선교전략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3) 구조 변화

2010년 12월 인구조사국에 의한 발표에 의하면, 미국 내 한인인구 수는 130만 6714명으로 보고된다.[13] 또한 미국 국토 안보부 산하 이민통계국이 발표한 2008 회계연도의 비 이민비자 입국자 통계 보고서(Nonimmigrant Admissions to the United States.2008)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비자(F1)신분의 한국 유학생은 12만 7천 185명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미국 내에 23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두고 있으며, 일부의 한인들이 미국 인구조사국의 조사에 적극 참여치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약 200만 명 정도의 한인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국 내 한인교회의 수는 현재 약 4,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인 기독교 전문지인 크리스찬 투데이[14]가 최근 출판한 2011년 한인교회 주소록에 따르면 인구 약 2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한인 500명 당 교회 한 개가 있는 셈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전역에 한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함께 존재하는 한인교회들의 역할은 복음의 전도라는 본연의 종교적 신앙으로 역할 뿐만 아니

[13]미국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10년마다 인구조사를 행하며 그 홈페이지인 www.census.gov에서 그 결과를 발표한다.

[14]크리스찬 투데이(www.christiantoday.us):한인 기독교 신문으로서 시사,신앙,목양 칼럼 등을 수록하고 있다.

라, 사교장, 직업소개소, 그리고 학교 및 사회사업기관으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 왔다. 일제 억압에 맞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리고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했던 이민 1세대들에게는 교회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어루만져 주었고,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들어온 이민 2세와 3세대들에게는 초기 정착을 위한 동포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언어의 문제에 봉착한 낯선 이방인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그들의 고객이 되어 주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문화 괴리 현실을 완화하고자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려는 노력은 문화전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다. 2005년 말 미국에 설립된 주말학교를 포함한 한글 및 한국학교는 1,017개이며, 8,500명의 교사가 59,018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한인 가정의 자녀들은 방과 후 또는 토요일에 한글 및 한국학교에서 한글교육과 한국문화체험을 접할 수 있게 된다. 일부 한국학교들은 본국과의 연계 교육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매주 토요일 5시간 수업이 운영되고, 국어, 전통문화, 활동시간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고 있다. 1975년과 2005년 사이에 미국의 한국학교는 약 60배가 늘었다. 이전의 한인가정 부모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자녀들을 미국사회에 빨리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는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해 한국어교육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그 세대의 자녀들이 자라 경험하게 된 언어, 문화,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점차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였다.[15] 한인 2세들이 한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설

[15]최낙복,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태조사 연구:로스엔젤레스 지역을 중심으로*(우리말학회2008), 211-245.

명 할 수 있다.

첫째,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준다. 즉, 어렸을 때의 한글교육과 한국 문화 및 역사 교육이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준다.

둘째, 부모와 자녀간의 언어 장벽을 줄이고, 가족 간의 화목에 이바지한다.

셋째, 한국은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므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의 인터넷 웹 사이트를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학교는 제 2의 대사관이며, 한국학교 교사들은 제 2의 외교관으로 부를 수 있다. 특히 미국 한국학교 중 85% 이상이 교회에서 부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16]

한마디로 이민 2세 교육은 교회를 배제하고는 이뤄지기 어렵다. 따라서 목회자의 민족교육에 대한 관심이 이민사회의 민족교육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본 연구의 대부분이 한글학교를 운영하는 한인교회에 대한 이해와 구조 및 한계점을 바탕으로 하게 된 것이다.[17]

뉴욕과 뉴저지 주의 학교들은 환경, 시설 및 교육 수준이 미국에서 상위권에 속하며 이들 지역의 학교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제도가 철저하여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적은 편이다. 한인들의 밀집지역인 만큼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한국 유아원이 있어 유아들이 모국어 및 한국문화 습득을 도움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또한 학교공부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한인들이 운

---

[16]최규용, *학부모회를 찾아서 남가주벨리학국학교* (미주지역한국일보 2007),16.

[17]이선근, *재미교포의 한국어 교육* (서울:이중 언어학회 333호,2007),449-450.

영하는 사설 학원과 개인지도, 유아들을 위한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는 기관 및 개인지도교사도 쉽게 접할 수 있다. 현재는 한인들의 구조변화를 통한 한국학교에 대한 의식과 필요성에 대한 신뢰가 쌓여있고 관심과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변화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체계성과 사회 연관성 및 교육적인 체계가 많이 부족하다. 교사의 노력과 헌신도가 크지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교회 학교 또한 학문적 접근과 전문가와 교사의 사명이 부족한 기능적인 교육에 치우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한계점과 발전가능성을 통한 자기점검으로 교회한국학교의 발전과 선교적 전략을 통한 교회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미주 한국학교

1. 한인사회와 한국학교

1) 재외 국민의 정의

재외 국민이란 외국에 체류 혹은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외 국민을 작은 뜻에서 규정 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교민과 외교관, 상사 임직원 및 자녀 그리고 유학생들도 포함한다. 즉 우리나라 국적을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나 국외거주자를 말한다. 재외 국민은 재외동포의 한 유형으로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재외국민교육은 재외 동포교육 안에서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재외 국민교육은 크게 국외에서의 교육과 국내에서의 교육으로 구분하며, 전자는 국외에서 각종 재외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자는 국외에서의 교육을 보완 지원하는 형태로 국립국제교육원,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재외동포재단 등 국내 재외동포 교육관련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우리나라 국적 보유자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재외국민이라는 명칭을 주로 이용해왔으며, 이러한 외교통상부의 관행은 우리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교포들은 이미 한국국적을 포기한 거주국 국민

이므로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권한 밖이라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재외 국민을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의 재외한국인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자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18] 다시 말하면 재외동포라는 용어는 해외동포, 교민, 교포, 재외국민, 재외한국인 등의 명칭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재외 국민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말하고, 재외동포는 좀 더 넓은 의미로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즉,일시체류자,영주권자,시민권자,이민 2/3세 모두 포함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한국인계를 총칭한다.

2) 한국학교의 정의 (재외 국민교육)

재외 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재외 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 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재외교육기관에는 재외한국학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이 있고,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재외 교육기관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전일제 정식학교를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외 한국학교는 상사 주재원 등 일시 체류민 자녀 등을 대상으로

[18]이종서, *재외국민교육 현황과 발전방향 제1호* (국제교육진흥원 1993),12.

국내 및 현지의 정규과정을 교육하고 있는 정규학교이며, 한국 교육원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어 문화를 가르치는 사회교육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한글학교는 재외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주말을 이용하거나 또는 정시제로 운영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비정규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한글학교는 외교통상부 소속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다.[19]

(1) 재외 국민 교육의 의의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재외 국민교육이라고 할 때, 이러한 재외 국민교육은 왜 필요하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재외 국민교육의 필요성 내지 중요성은 재외동포의 존재 의의 및 그들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서 비롯된다. 중국, 이태리, 이스라엘, 그리스, 인도와 같이 큰 규모의 재외 국민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재외 국민을 자국의 경제 발전과 세계화전략에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해외 화교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화상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화교경제권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태리는 재외 국민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해외 이태리 공동체를 이태리의 네트

19김경화, *재외 한국학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고등교육 전공석사학위 논문 2012),11.

워크를 강화하는 교두보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그리스, 인도 등의 나라들도 역시 재외 국민들에게 국내 출입국 및 투자, 구직 등의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재외동포를 자국의 세계 경제력고양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재외 국민는 세계 173개국에 700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총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인구 대비 해외거주 인구 비율 측면에서 볼 때 재외 국민이 이스라엘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세계최고 수준이다.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외국민들은 미국, 중국, 일본 뿐 아니라 독립국가연합 등 이념과 체제가 전혀 다른 지역까지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본래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재외 국민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이를 집결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모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해외 이주 역사가 13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민 3,4세가 등장한 현 시점에서 재외 국민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미 한인과 비한인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아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의 언어,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동포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혈통이나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또한 공연이나 전시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 것도 재외국민들의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외 국민교육은 재외동포 및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한편으로 모국과의 일체감·유대감을 강화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굳건한 생활능력을 길러줌으로써 개인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우리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해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외 국민교육은 재외동포들의 민족정체성을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그들을 집결, 활용할 수 있도록 는 것이 유일하고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재외 국민교육이 갖는 의의를 민족적, 국가적 견지에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20]

① 재외 국민교육은 재외동포와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으로써, 그 국가에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② 재외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양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통일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화해·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의 이해와 공조가 필수적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통일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통일 이후에 다른 국가들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과 국가의 내적 역량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③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거나 중대한 국가적 행사를 치르고 있을 때마다

[20]진동섭, *재외동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교육 인적 자원부 2003),12.

재외동포들이 성금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온 것이 사실이며, 이점에서 그들의 지원이 문제해결에 기여한 정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재외 국민교육은 재외동포들로 하여금 민족적 긍지와 함께 경제적 실력을 갖추도록 해주며, 이런 과정을 거쳐 성장한 유능하고 성공적인재외동포 기업인들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거주국의 경제와 우리 경제를 연계시키는 교량 역할을 할 수도 있다.

④ 우리 민족 문화를 세계화, 선진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세계 각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거주국의 외국인들에게 우리문화를 전파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세계화의 첨병 역할을 하며,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 외국의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지역적, 문화적 폐쇄성을 극복하고 선진문화를 창달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재외동포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양국의 언어와 문화 모두에 익숙해 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각국은 공연이나 전시 등의 직접적인 방식을 통해 자국의 민족문화를 세계 속에 알리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 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그들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자극의 재외동포들을 통하여 자국의 민족문화를 느끼게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목표

재외 한국학교는 해외라는 지리적 특성과 재외동포라는 민족적·문화적인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재외 한국학교의 설립 운영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① 재외 한국학교는 영주동포 학생에게는 모국 이해 교육을, 일시체류 학생에게는 본국와의 연계교육을 실시한다.

② 재외 한국학교는 민족학교로서의 토대 위에 국제화,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갈 세계인을 기르기 위한 국제학교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③ 재외 한국학교는 학생들이 민족문화를 배우고 익혀 그 우수성을 깨달음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도록 하는 한편 조국의 번영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한다.

④ 해외동포들에게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잃지 않고, 민족의 자긍심을 키우고, 민족의 고유 문화를 이어가게 하는 민족정체교육을 추구한다.

⑤ 해외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인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며 현지학교 및 사회로의 진출을 고려하여 현지적응교육을 추구한다.

⑥ 해외에서 귀국한 후 본국의 학교 교육과정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본국의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운영하는 본국연계교육을 추구한다.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목표이다.[21]

---

[21]김용만 외, *국제화 사회에서의 해외한국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교육정책연구과제보고서 2001), 17-19.

(3) 재외한국학교의 민족정체 교육적 특성

나는 한국인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하고, 민족의 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민족 교육이 필요하다.

민족 정체성교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특성이 필요하다.

① 국어교육을 강화하여 공통 생활감정과 겨레의 얼을 이어 받게 한다.

② 통일 대비 교육을 통하여 평화통일의 의지를 드높인다.

③ 애국가, 태극기, 무궁화를 사랑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함양한다.

④ 경축일, 기념일의 의의를 알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⑤ 민족문화를 배우고 익혀 우리의 것을 소중히 보존하며 우수성을 깨닫게 한다.

⑥ 민족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도록 한다.

⑦ 민속놀이, 풍속 및 전통음식문화를 이해하게 한다.

⑧ 예절 바르고 질서 있는 생활태도를 확립한다.

⑨ 민족교육을 통하여 우리 역사와 전통을 알게 하여 민족 주체성을 확립시킨다.

(4) 재외 한국학교의 현지적응 교육적 특성

재외한국학교의 지리적,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 현지 적응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한 교육 상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① 현지 나라의 학습지도요령 및 교육 관계 법규 등이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되도

록 한다.

② 현지 학교 진학, 취업 등 적성을 고려한 반 편성 및 시간표 작성을 한다.

③ 언어기능 향상을 위하여 소수 그룹으로 나누어 수준별 학습지도를 한다.

④ 영주, 정주 학생의 모국어 지도를 강화하여 민족교육을 실현한다.

⑤ 국어 교육을 향상시켜 국제화 사회에서 필요한 언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⑥ 교과 학습지도는 기초적인 학습 요소를 정선 지도하며 자주적 학습 태도육성에 힘쓴다.

⑦ 전입생의 외국생활 및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안내 및 지도를 한다.

⑧ 글로벌한 국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

⑨ 한국학생으로서의 품위와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5) 재외 한국학교의 본국 연계 교육적 특성

재외한국학교의 학생들의 귀국 특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본국 연계 교육이 필요하다.

① 우리나라 초 · 중등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현지의 한국인 사회와 현지 역사회의 환경과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② 한국어, 현지국어, 일상적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식 · 정보습득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과목의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지적, 정서적 영역에 속하는 교과의 지도에 충실을 기하고 각 교과와 특별활의

균형 있는 운영으로 전인 교육을 실천한다.

④ 학생의 발달 과정, 개인차 , 진로와 현지 적응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교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⑤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여 언어기능 향상 관련 교과는 수준별 그룹으로 나누어 지도한다.[22]

3) 미주 한인사회와 한국학교의 관계

(1) 미국의 한인사회 양상

1965년 이후의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주된 동기는 한국에서 이룰 수 없었던 사회적, 경제적 신분상승을 미국에서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사회에서 신분상승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한국만큼 어렵고 제한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23]언어장벽, 한국과 미국사회의 불일치되는 개념들, 미국의 문화와 제도에 대한 생소함, 그리고 이민자들과 소수민족에 대한 백인들의 편견과 차별 등은 그들로 하여금 미국 노동시장에서 전문직이나 화이트칼라 직업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

[22]김준희, *재외한국학교의 교육 실태 비교* (서울교육대학교 석사논문 2008),34.

[23]Hurh, W. M, *The Korean American dream: Immigrants and small business in New York Ci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998),795-796.

한인들이 쉽게 가질 수 있었던 직업들은 한인들의 민족경제(ethnic economy)나 2차적 노동시장(secondary labor market)에서 주어지는 낮은 임금과 노동 집약적이고 승진 기회가 없는 직업들이었다. 1976년 미국 이민법의 개정에 따라 한인들의 미국 입국 방법의 변화가 일어났고 미국과 한국의 경제 변화[24]로 인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계층에 점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전에는 노동직, 기능직, 서비스직, 농업 등의 블루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비율이 높았던 것에 비해 1980년대 초부터 화이트칼라 출신의 한인 이민이 증가하였다.

미주 한인들의 수적 증가로 인해 미국 대도시들에 한인 타운이 형성되었고, 새로 이민 온 한인들은 주택, 직업, 종교, 여가 등을 자신들에게 친숙한 한인 타운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영어가 부족해 직장을 찾기 어려웠던 한인들이라도 한인업소들과 각종 한인단체를 통하여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인들 간에 강한 유대를 맺게 하여 한인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였지만 한인들을 미국 주류의 사회와 문화로부터는 고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2005년 미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140만 명가량의 한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고 그 중 432,907명의 한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계 한국인이고 973,780명은 미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이며, 이들 중 시민권을 가진 한인은 530,100명이고 나머지 443,680명은 단기 거주자이다.

한인들이 주로 밀집되어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캘리포니아 주, 뉴욕과 뉴저지 주, 워싱턴D.C. 부근, 텍사스 주,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 주를 뽑을 수 있으

[24] 윤인진, *미국으로의 한인 이주와 이민가족의 세대갈등* (재외한인학회,9(1)2000),5-44.

며(외교통상부, 2005), 한인들의 75%가 이들 지역에 살고 있다.[25]

그 중 뉴욕 시 메트로폴리탄지역에 속해 있는 뉴저지 주 Palisades Park는 미국에 있는 한인의 36.38%가 거주하고 있어 미국 한인역사상 최고의 한인밀집 지역이다.

뉴욕과 뉴저지 주는 미국 동부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데, 한인들의 수가 증가되면서 한인단체와 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갖추어져 있어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이라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다.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이 본격화 된지 30년이 되면서 미국의 한인세대는 이민 1세대를 중심에서 1.5세, 2세, 3세로 점차 바뀌는 상황이다.

이들 젊은 세대들은 현재 미국 주류 사회로 진출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내며 영어와 미국문화에 익숙한 동시에 가정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한국문화에도 친숙하다. 이처럼 현재 미국의 한인세대는 이중 언어와 이중문화의 장점을 갖고 있어 미국사회와 미국 속 한인사회의 다리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한인가정의 자녀들의 우수성에 대한 근거를 알기위해 한인부모들을 비롯한 아시아계 부모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상당수가 한국이름 또는 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에 의해 연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즉 미국 내의 한국인들도 한인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와 문제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Sandefur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아메리칸

---

[25]장태진, *한국말 공동체의 연구: 거시 사회언어학 이론* (서울: 역락 2004),76.

인디언, 흑인, 히스패닉, 백인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계학생들의 경우 자녀의 학교활동에 대한 어머니의 모니터 비율이 백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86.5%), 아버지의 모니터는 가장 높았고(83.5%), 부모와 대화도 가장 많이 하고(68.6%), 어머니가 자녀의 대학졸업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8.6%), 자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 지 항상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백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79.9%). 아시아계의 양육 방식은 아시아 자녀들의 학업 성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다른 연구자들도 아시아계 자녀들의 성취가 특별히 어머니의 기대와 신념과 관련될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26]

하지만 이와 같은 한인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인가정의 자녀들의 뒷면에는 수많은 내적 갈등과 혼란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되고 있다. 부모들 역시 자녀들과의 언어, 문화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대 간 갈등과 미국 사회에의 적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Golden에 의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의 부모들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으며 기혼이고 한국어를 사용하며 직업을 가진 데에 반해 문화적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 연구자들은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부모들이 미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자라온 문화에 강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

[26]Bacon, W. F., & Ichikawa, V, *Maternal expectations, classroom experiences, and achievement among kindergartener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Human Development, 31(6)1988),378-383.

한국인은 다른 소수민족보다 더 편협된 경향이 있고, 사업을 할 때에도 한국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집단이 소외감을 느끼도록 한다고 하였으며, 미국인들은 다른 아시아계 보다 한국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덜 갖기 원한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PAAT(Parent As a Teacher Inventoty)를 통해 미국에 이민 온 한국 부모와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간의 자녀양육태도의 차이점을 측정해 본 결과, 한국에 있는 한국부모와 미국에 이민 온 한국부모와의 자녀 양육행동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즉 한인들은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였음에도 자신의 고유문화와 언어를 유지하며 살기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가정의 문제들을 분석한 수많은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한인가정의 부모들이 겪는 반복적이고 공통된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알아낼 수 있다.

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문제는 영어능력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한인 이민자들의 더딘 문화적응 과정의 원인 역시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부족한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시카고에 사는 재미교포들은 59%가 생활영어에 어려움을 겪고,12.7%만이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약 95%의 한인 이민자들이 대인관계에서 영어사용을 피하고 한국어만 쓰기를 원한다고 한다.

언어적 어려움은 부모 자신의 사회생활 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에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인가정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서 언어의 어려움은 가족원들 간의 가장 큰 갈등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서도 교사와의 상호 이해가 부족하고, 학교시스템이나 수업방식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녀가 학교에서 내어주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돕지 못하고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② 한인 가정의 부모들은 영어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연스레 미국 매체에 접하지 않으면서 미국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된다. 실제로 주로 한국어를 쓰며 살고 있는 이민자들 중 50%가 미국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54.7%는 미국 친구가 없으며,[27] 자신의 한국이름을 미국이름으로 바꾸기조차 꺼려한다고 한다.

실제로 75%의 한인들이 정기적으로 한인교회나 성당을 다니고, 보통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주로 접촉하는 대상도 한국인 친구나 친척, 이웃이기에 미국인과 접촉하며 영어를 배울 기회가 적다.

이러한 분위기는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 긍정적인 충족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며 한인들의 심리적, 정신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국 사회에서 자신을 제한시킨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

[27]Yu, E. Y,*Korean communities in America: past, present, and future*. Amerasia,(1983), 23-51.

③ 한인 가정의 부모들은 한국에서의 높은 학력과 직위를 미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직업선택의 수준이 낮아진다.

한인부모들이 아시아계 부모들 중 가장 학력이 높다고들 한다.[28]

한국에서의 높은 학력과 직위로 인해 누렸던 삶의 질이 언어, 문화의 차이로 인해 낮아지고, 소수민족으로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 제약과 불리함이 이민가족에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를 부여하게 되며, 이것이 부모·자녀 간에 과중한 부하를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미국거주한인들은 짧은 이민정착의 역사 속에 큰 한인사회를 만들었고, 한인사회를 통해 어렵고 외로웠던 이민생활에서 정서적 안정과 생활적 편의를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인사회의 발달로 인해 한인부모들은 미국사회와는 거리감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고, 이는 개인의 능력과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겨 주기도 하였다. 그 중 가장 큰 부분은 한국문화와 미국문화 사이에서 여러 갈등을 겪으면서도 적응을 하고자 애쓰는 그들 자녀와의 관계 문제일 것이다.

(2) 재미 한글학교 실태 및 특성

1907년, 하와이에 처음으로 국외 한글학교가 세워지면서 한글학교의 역사는 100년을 넘고 있다.[29] 1907년 4월 5일, 하와이 빅 아일랜드 힐로에 세워진 것이 효

---

[28]Yu, E. Y,*Korean bilingual education in sociological perspectives* (Bilingual Resources, 3(3)1980), 80.

[29]1907년 4월 5일,하와이 빅 아일랜드 힐로에 세워진 것이 효시이다.이덕희(2003.17)에서 인용

시이다.[30] 즉 최초의 한글학교는 일제 강점 직전, 일제에 의해 국권이 피탈되던 시기에 설립되었다. 이에 초기 한글학교는 자녀를 한국인으로 키우는 동시에 부모의 통역자로 양성하는 실제적 목적을 달성하고 나아가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삼고자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한국계이민 자녀들에게 한국 문화를 배우게 하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정체감을 심어주기 위한 민족 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31]

그러나 미국 이민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70년대는 민족교육보다 오히려 실용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고[32]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그리 크지 않았던 시기인데다 미국 사회로의 빠른 적응이 목표였던 그들에겐 정체성, 한국어 교육보다 미국화, 영어 교육이 더욱 급선무이기도 했다. 그러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오랜 이민 생활 경험으로 생존과 적응의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다시 이민자들의 관심은 초기 한글학교의 민족 교육에 눈을 돌리게 된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자녀 세대와의 갈등, 민족 정체성, 정치 참여 등과 같은 정신적인 것과 사회 참여의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33]

여기에 세계화 시대의 도래로 기능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정체성과 한국어 교육을 동시에 시킬 수 있는 한글학교의 숫자 및 학생 수가 급증하며 한글학

함. 즉 한글학교의 역사는 미국 한인 이민 역사(1903년 시작)와 궤를 같이 하며 발전하고 있다.

30이덕희.*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랜덤하우스 중앙 2003),17.

31김경근,*미주 한인의 민족 교육관 연구.비교교육연구* (제 15권 2005),34.

32최은수,*재외동포 교육과 이를 위한 본국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고찰: 재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1998),8(2),211.

33윤인진.*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64.

교는 현재 크게 정체성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면서 재미동포 한인 후세들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한글학교는 미국의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민족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역사 · 문화 등의 교육을 보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글학교의 역사는 미국 한인 이민 역사와 같이 하며 발전하고 있다. 개 현지 교민들의 자생적 노력으로 설립되었으며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건물은 종교기관 이용률이 가장 많고 그 외 한인회 건물이나 현지 학교를 빌려서 사용한다. 이는 총 964개교 중 682개교가 종교기관 부설학교로 71%를 차지하기 때문이다.[34] 학교 규모는 학생 수가 10명 이내에서 800명 이상의 학교가 있는 등 다양한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중 학생 수 40 명 미만의 학교가 2009년 10월 현재 964개 학교 중 557개교로 58%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규모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학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35]

그리고 소규모 학교는 대부분 종교기관 부설 학교로 557개교 중 422개교로 75.8%를 차지한다.[36] 422개교 중 천주교 부설이 7,불교 부설이 7,기독교 부설이 408개교로 종교기관 부설 중에서는 기독교가 97%에 해당된다.[37]

---

[34]73개교 학교가 학교 상태를 쓰지 않거나 분류하기 불분명하게 쓴 관계로 통계를 잡히 못하였다. 이 중에도 종교 기관 학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통계는 80%를 넘으리라는 판단이 선다. 재외동포 현황(2009년 10월,재외동포재단)자료를 참고하여 통계를 냈다.

[35]재외동포 현황(2009년 10월,재외동포재단)자료를 참고하여 통계를 냈다.

[36]55개교가 학교 상태를 쓰지 않거나 분류하기불분명하게 쓴 관계로 통계를 잡지 못하였다. 이 중에도 종교기관 학교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통계는 80%를 넘으리라는 판단이 선다. 재외동포 현황(2009년 10월, 재외 동포재단)자료를 참고하여 통계를 냈다.

[37]재외동포 현황(2009년 10월,재외 동포재단)자료를 참고하여 통계를 냈다.

기독교가 초기 재외동포 후세 교육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지금은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보다 교회의 설립과 동시에 한글학교가 설립됨으로 인해 전문성과 효율성 면에서 질이 떨어지는 학교가 많기도 하다.

수업시간 또한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지만 한국어 2시간, 한국역사 · 문화 1시간수업으로 진행되는 학교가 많다. 대부분 한 학기에 14~16주를 운영하며 LA 지역의 경우 20주 이상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방학 없이 운영하는 학교도 있는 등 학기 운영기간도 다양하다. 입학 시기도 강제성이 없으므로 대부분 4~6세에 입학하기는 하지만 10세~15세 사이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도 있기에 나이 차이가 많은 학생이 한 반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생긴다. 매 학기 마지막 주에는 종업식을 하는데 한국어 발표 및 태권도 무용 등 한 학기 동안 배운 문화과목에 대한 발표도 한다.

제2언어를 완전하게 습득하는 데 있어서 지능이나 언어적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구성원과 의사소통 하고자 하는 동기라고 지적한 것을 보았을 때 한글학교 학습의 효율성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38]

학생의 입장에서는 미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한국어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토요일 아침에 한글학교에 다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4~6세 때는 나이가 어린 관계로 부모님의 의사에 잘 따르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렵기 만한 한국어를 배우기 싫고 토요일에 쉬거나 다른 활동을 하고 싶은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가 되면 매번 한글학교 개강 즈음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

[38]이동재 외. *한인학교의 한국어 연구* (하와이대 출판부.2002),28.

영어만으로 모든 의사소통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시기(아동,청소년기)와 한국어가 실질적으로 필요(대학 때 자신의 정체성을 찾거나 졸업 후 업무 능력으로서의 한국어)해지는 시기가 현저히 다른 관계로 학습 동기가 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글학교 교사 또한 비전문가가 대부분인 관계로 수업의 질이 높지 않고, 교재 의존도가 높다 보니 전통적인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 학생들은 이중삼중으로 한국어를 힘겹게 배우고 있다. 이렇다보니 한글학교에서의 한국어 실력이 크게 성장하기가 쉽지 않고 어느 정도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면 부모님 의사와는 반대로 한글학교를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글학교에는 유치반과 초급반 학생은 많지만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학생 수가 적은 피라미드 형태의 학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미국 한인 자녀들의 문제점

한국식 자녀교육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은 부모에게 순종이며 미국식 자녀교육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은 자녀의 독립심 강화라고 하였다. 한국의 가정은 유교적 가족주의로 부모 자녀의 위계적, 수직적 관계를 지향하며[39] 가족의 정체감과 관계를 중요시 하는 반면, 미국의 가정은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가치를 중요시하며 모든 가족원은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40] 즉, 한국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타당한 의견

---

[39]Pyke, K, *The normal American family as an interpretive structure of family life among grown children of Korean and Vietnamese immigrant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62(1)2000). 240-255.

과 논리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럽다. 일부의 연구에서는 이중문화 소유자가 더욱 긍정적이고 학업성취에 뛰어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동양계 학생의 우수한 학업성취가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일본과 중국인의 우수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한국인에 대한 관심도 커져왔다. 대중매체와 언론의 관심은 학계에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학자들은 여러 각도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가정의 자녀교육을 설명하였다.[41]

한국인 부모의 높은 자녀교육열은 미국사회에서도 주목받았듯 자녀의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쳐 좋은 결과를 가져온듯하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한인가정의 자녀들은 가족과 학교의 친구들 간에 내적인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42] 유아에게는 정식 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 벌써 가정에서 처음 접했던 문화와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다.[43]

그리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유아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차별된 태도로 인한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된다.

Yeh(2005)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한국 고유의 문화를 따르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사회에서는 미국의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받아들이

---

[40]Strom, R. D., Daniels, S., & Park, S. H, *The adjustment of Korean immigrant famil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Research, 6(3)1986), 213-227.

[41]Coleman, H. L. K. Casali, S. B., & Wampold, B. E, *Adolescent strategies for coping with cultural diversit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79(3)2001), 356-364.

[42]Chung, W. S., & Pardeck, J. T, *Treating powerless minorities through an Ecosystem Approach. (*Adolescence, 32(127)1997), 625-634.

[43]Flores, J, *Childrearing attitudes of Hispanic parents and teachers of preschool and kindergarten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86), 47,

기를 요구한다고 한다. 이중문화속에서 자라나는 한인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상반되는 두 문화를 수용해야 하는 부담에 부모와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은 심리적 문제로 내면화된다.

또한 대부분의 한인부모들은 미국부모들과 달리 지나치게 높은 진학 및 학업성적에 대한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압력과 자신들의 생각을 반대하는 부모들로 인해 도리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부진한 성적이 나타나고, 부모와의 갈등은 결혼 및 이성 친구를 만나는 문제에 심각한 갈등을 안겨 주었다. 이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력, 청소년 비행, 어른과의 불화, 결혼생활에서의 갈등, 가족 내의 세대 간 갈등, 알코올중독, 정신병을 앓기도 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한인 부모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문화의 가치를 유지하며 더딘 문화적응 과정을 겪는 반면, 자녀들은 미국문화와 가치 체계에 빠르게 적응하게 된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는 한인 2세들은 만 5세까지는 유창한 한국말을 구사하다가, 학교에 들어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영어와 미국문화에 친숙해져, 미국적 정서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44] 많은 경우 부모는 한국어로 말하고 자녀는 영어로 대답한다.

6-10세 아동을 둔 재미동포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52%가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부모의 60%가 자녀가 영어로 말할 때 한국어로 대답하고, 31%가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한다고 한다고 한다. 더딘 문화적응기간을 겪

---

[44]최낙복.*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태조사 연구: 로스엔젤레스 지역을 중심으로*(우리말학회 2008),22, 211-245.

는 한인부모의 생활은 미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며 살아가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이러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세대 갈등은 미국에 오래 거주할수록 더 깊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인간은 보통 3-4세가 되면 어떤 사람이 백인이고 어떤 사람은 흑인인지 구별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나의 신체적 차이를 구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자아정체감이 생겨난다.[45] 한인이민가정의 자녀들은 생득적인 한인 정체성과 자신이 새로이 획득한 미국인 정체성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정신적 협상(mental negotiation)을 거쳐 얻게 된 사회적 구성체(social construct)라고 묘사하였다.

하지만 한인자녀들은 부모와 같은 "한국인"이지만 생각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다르며, 미국 사회에서는 그들을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은 자녀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아 혼란을 깊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미국의 한인자녀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가정과 학교에서의 문화차이에 따른 문제,

② 부모와 자녀의문화적응기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

③ 한인가정 자녀의 정체성 위기와 문화적 자아혼란의 문제로 요약되어 진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실태와 문제점들은 각기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연관되어 있어 한부분이 개선되기 시작하면 다른 문제들도 나아질 수 있고, 한부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심각해 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

---

[45]정선희. *다문화 교육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24.

고무적인 일은 한인들의 노력과 한국의 위상 신장으로 1970년대 이후 정부의 강력한 외국어 교육 정책으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한인 교회에서 한글학교를 운영하여 이민 1.5세와 2세들에게 가르쳤다. 1997년부터는 미국 대학 수학능력 시험인 SAT(Scholastic Assesment Test)의 선택 과목 SATⅡ에 외국어로서 한국어가 포함되기도 했다.[46]

(4) 이민교회와 한국 교회간의 관계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과 남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인도에 돌아왔을 때 그는 국가 지도자들이 유럽 풍습을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의 독립운동은 실패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서구의 의복과 문화를 벗어버려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민족을 영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인도에 돌아온 이후로 그는 줄곧 의복과 문화와 생활방식에 있어서 다시 인도인이 되는 훈련을 했다. 결국 그는 인도인들의 호응을 얻게 되었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현대 인도의 국부가 된 것이다.[47]아시아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자국인 선교사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는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그 지역 출신의 선교사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인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거부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복음으로 그들을 얽어 맨 서구의 문화만을 거

---

[46]김중섭, *한국어 교육의 이해* (서울: 한국 문화사. 2008), 4.

47요하난, K. P, *다가오는 세계선교의 혁명* (서울: 죠이선교회. 1990), 156-157.

부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모든 모양으로 되었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아시아인이 같은 문화권의 아시아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큰 효과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아시아 복음선교회 대표 K. P. Yohannan 목사의 이론대로라면 이는 아시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문화권과 인종에 있어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사실에 있어 모두 수용하는 바이다.

하지만 서양에 있어서, 특히 중남미 상황에 이를 적용해 볼 때 절대적으로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의 인종과 문화는 유럽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같은 나라의 후손들로 형성된 역사적으로 식민지 국가들이고 독립 후에도 이민자들의 나라로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지닌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 국가들과 차이점을 나타낸다.

브라질 경우에는 일본인들이 유난히 많기도 하다. 아르헨티나는 전 국민의 90%가 이탈리아 혹은 스페인 후손들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다.

미국 다음으로 유태인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며, 아랍인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러시아계와 동양인도 상당히 많은 국가이다. 따라서 그 문화는 한가지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은 유럽인들과 원주민들 사이에서 태어난 mestizo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나라마다 그 특징적인 문화요소들이 있다.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도적지 않게 많다. 이러한 점이 남미 선교에 있어서 매력적이게 만든다. 우선 우리 한국인 선교사에 대

한 인종차별이나 거부감이 없다. 물론 그들의 동일인종이 할 수 있는 몫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들을 선교대상에서 선교사들로 만들면 이들을 통해 훨씬 더 많고 넓은 사역의 장이 펼쳐진다. 이들은 문화권이 상당히 넓다. 그리고 인종도 매우 다양하다 보니 유럽 국가들을 재 복음화 해야 하는 이 시점에 매우 전략적인 인재들이기도 하다. 미국이나 영국인들이 더 이상 선교하기에 힘든 중동과 아랍 국가들에서도 그들과 가장 흡사하고 거부감 없이 들어가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라틴아메리카 인들이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한 마차의 쌍 바퀴와 같은 관계이다. 서로 떼어낼 수 없고, 떨어져서는 서로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를 이민교회와 협력할 때 보다 효과적인 사역이 가능해지며,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를 단축할 수 있다. 선교사들도 이민교회의 도움을 받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수 있다. 동시에 이민교회는 한국교회와 보다 활발한 교역으로 인해 새롭고 활기찬 활력소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지도자들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2. 선교적 관점에서의 한국학교

1) 문화선교와 전도의 대한 신학적 관점

사회제도로서의 학교는 인간의 문화적, 역사적 산물이다. 학교제도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였다. 그러나 문화의 발달과 인간사회의 분화, 성장, 그리고 이와 함께 아동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할 지식과 기술의 증가로 부모들은 더 이상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부모들에게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필요한 시간과 기술이 부족하였다. 그 결과로 부모들은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구조로서 학교를 창안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학교는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즉 다음 세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의 지식 내용을 가르치기 위하여 인간에 의해서 고안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48] 그러나 이러한 학교가 전적으로 인간적인 기원(human origin)만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창조 세계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창조 세계는 인간의 모든 경험과 인간 사회의 구조를 예외 없이 포함한다.[49] 문화 명령으로 일컬어지는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

[48]김성수, *학교 및 학교교육에 대한 성경적 조망,* 통합연구 통권13호(통합연구학회,1991),109.

[49]S. Fowler, *Christian Educational Distinctives*(South Africa: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여 땅에 충만해야 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이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본질상 사회적이고 문화적이어야 함을 뜻한다.[50]

이 말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51]

그러므로 인간의 문화 활동의 산물인 학교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 내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곧 학교는 창조주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으며, 그 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회적 활동 중 하나의 형태이다.

학교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존재하는 바와 같은 제도적 형태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정하신 사회제도가 아니라 정치제도나 경제제도처럼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생겨난 제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미리 인간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될 각 제도의 고유한 존재론적기능이나 구조, 규범, 법칙 등을 주셔서 각자 구별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존재하게 하셨다.[52]

물론 모든 제도들이 동일한 구조나 기능을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학교의 존재를 위한 원리(the principle), 틀(theframework), 존재론적 구조(the ontic structure), 존재론적 법칙(the onticlaw), 구조적인 규범(the structural norm)등을 주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교의 존재론적 법칙 또는 구조적 규범은 인간의 문화적 활동에 의해서

Christian Higher Education, 1987), 88.

[50]Albert M. Wolters, *창조·타락·구속,* 양성만 역(서울: IVP, 1998),53.

[51]S. Fowler, *Christian Educational Distinctives,* 91.

[52]Ibid.,94.

발견되고 실체화된다. 이 법칙 또는 규범은 그것이 올바로 기능을 발휘하고 의미를 갖기 위해서 인간의 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발전에 따라 주체면(subjectside)에 실체화(positivization)되어야 한다.

학교는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이러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제정해 주신 것으로 인간이 그 문화적 사명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동의 본래적 잠재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독특한 전문적 기관인 것이다.[53]

그런데 이 실체화의 과정은 인간의 마음 또는 종교에 따라 하나님 지향의 방향(anastatic direction)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 배척의 방향(apostatic direction)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종교적 존재(religiousbeing)로서의 인간이 학교의 존재론적 법칙(구조적 규범)을 역사, 문화적 맥락에 따라 사회제도의 형태로 구현시키기 때문에 학교 제도의 실체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소위 가치중립적인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교육적 활동은 종교성과 목적성을 가지며, 나아가 학교 역시 종교성과 목적성을 벗어날 수 없다.[54]

이처럼 학교의 원리나 기능, 구조 등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세워질 수 없는 신적 기원(theo-origin)을 가지고 있다.[55] 따라서 사회제도로서의 학교는 임의적인 기구나 단순한 역사의 우연한 산물이 아니다. 학교는 역사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결정되어지지 않는다. 학교의 존재론적인 법칙과 구조는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

[53]김성수, *학교 및 학교교육에 대한 성경적 조망,* 통합연구,110-11.

[54]Harro Van Brummelen,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Burlington:WELCH PUBLISHING CO, 1998),22.

[55]S. Fowler, *Christian Educational Distinctives*,94.

있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없다.[56] 오직 인간은 이 존재론적 법칙을 구현하는 책임을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학교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제도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어야 한다.[57] 20세기 교육사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John Dewey는 학교의 기능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① 인류 사회의 근본적이면서도 다양한 문명들을 아동으로 하여금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단순화된 환경으로 제공하는 것,

② 기존 사회의 무가치한 특성들을 제거하여 정신적 관습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정화된 행동환경을 제공하는 것,

③ 사회 환경의 여러 요소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각 개인으로 하여금 각자가 태어난 사회 집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환경과 산 접촉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아울러 다양한 사회적 환경의 다양한 영향들을 개인의 성향 속에서 조정하는 기능을 길러 주는 것이다.[58]

또한 전통적인 학교제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시작했던 인본주의 학교 비판론자인 라이머(Everett Reimer)는 전통적인 학교가 학생을 보호하는 기능(custodial case), 사회적 역할의 선별적 기능(social-role selection), 이론이나 원리 혹은 사상을 주

---

[56]Ivan Illich와 E. Reimer 등이 1960년대 말부터 학교제도가 가치의 제도화, 속도와 진보, 양적 증대를 존중하는 사회로 촉진시키는 주요인으로 평가하며 탈학교 운동을 펼쳤다. 즉 학교 제도는 사회의 계급구조를 영속시키며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학교 제도 자체를 거부하고자 했던 운동이다.

[57]S. Fowler, *Christian Educational Distinctives*,93.

[58]John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이홍우 역, *민주주의와 교육*(서울: 교육과학사, 1996),35-38.

입시키는 기능(indoctrination), 기술과 지식을 개발시킨다고 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교육의 기능(education) 등의 네 가지 기능이 결합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학교가 사회의 계층화된 질서를 합리화해 주고 고착화시키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다.[59]

한걸음 더 나아가 일리치(Ivan Illich)는 학교의 일차적인 기능을 인본주의적 측면에서 의미지우는 교육적 기능으로 간주하면서 제도로서의 학교교육의 효율성 문제를 논의하는데, 학교가 아동에게 지식을 가르친다고 하는 일차적인 기능 자체가 자신이 의미하는바 진정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교묘하게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하나의 통치도구로 이용되고 있기에 폐기시켜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0]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사회제도로서의 학교는 임의적인 기관이나 단순한 역사-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론적 법칙의 한 실체화의 형태로서 신적 기원을 가진 기관이다.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학교의 본질을 결정하는 학교의 존재론적 법칙을 주셨다는 사실은 원시사회를 포함하여 모든 문화권의 학교를 관찰해 봄으로써 더욱 명백하게 알 수 있다.

학교에 대해 역사적(수직적) 분석과 다양성(수평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모든 형태의 학교에 어떤 보편적이고도 본질적인 특색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곧 학교의 동일한 존재론적 법칙의 현실화 또는 실체화라고 설명한다.

---

[59]E. Reimer, *School is Dead*, 김석원 역, *학교는 죽었다*(서울: 한마당, 1997), 29-49.

[60]김성수, *의식화 교육이론과 탈학교이론에 대한 비교 및 비판적 연구* :기독교교육연구 제 1권 1호(고신대학교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1993), 26. 또한 일리치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학습은 우연히일어나기에 학교의 무용론(탈학교이론)을 주장한다(IvanIllich, Deschooling Sociaty, 심성보 역, 『학교 없는 사회』(서울: 미토, 2004),30.

그래서 역사적인 분석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학교의 제 일차적 기능은 후속하는 세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과 기술의 전수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학습을 위한 특수 공동체로서의 학교는 세 요소로 구성되어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르침을 원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 세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제거되면 제도로서의 학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61]
학교가 가르치는 것을 제 일차적 기능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위임해주신 교육명령을 뒷받침해 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의 책임을 부여받은 부모들이 학교의 존재론적 법칙을 구현화 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곧 학교의 교육적 사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학교의 존재론적인구조나 기능의 가장 큰 독특성은 교수-학습의 활동(the teaching-learningactivity)이다.[62] 그러나 학교가 교수-학습 활동이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는 아니가. 가정, 교회, 사회나 국가 등 인간들이 함께 모이는 거의 모든 것에서 교수-학습의 활동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학교의 교수-학습 활동은 다른 기관에서 일어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학교의 존재론적 법칙은 학교의 교수-학습기능을 독특하게 만들어 주는데 De Jong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① 형식적 또는 구조화된 활동이다.

② 학교의 교수-학습 활동은 그 구조화의 성격 때문에 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의 학습을 촉진시킨다.

---

[61]김성수, *학교 및 학교교육에 대한 성경적 조망* :통합연구 통권 13호(통합연구학회,1991),114.

[62]S. Fowler,*Christian Educational Distinctives*,94-95.

③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모두 배제시킨 집중적인 활동이
다. 요컨대 학교는 구조적, 촉진적, 집중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도모하는 장소로서 다른 사회 기구와 독특하게 구별시켜 주기에 계속적인 존재의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보장해 준다.[63]

학교의 교수-학습 활동이 다른 사회기관의 활동과 다른 두 번째 차이점은 논리-분석적 기능에 의해서 규정되어진다는 점이다. 즉, 학교의 교수 기능은 일차적으로 아동의 논리-분석적인 측면을 개현(unlocking or opening up)시키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가정의 일차적인 기능은 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교육 기능 역시 윤리적으로 규정되어지고, 교회의 일차적 기능은 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교육 기능은 신앙적으로 규정되어진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교육적 기능은 사법적 기능에 의해서 규정 지워 진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학교는 교수-학습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

학교의 제일차적 기능은 한편으로는 공동 사회의 문화가 아동에게 전수되는 교수-학습 상황을 창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인지적,정의적, 운동기능적 기술을 전수시켜 주는 것이다.[64]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수-학습 활동은 학교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역사 속에서 사회 기관들의 균형과 조화로 나타나기 보다는 빈번히 어느 기관의 독점이나 우월의 형태로 나타나서 다른 사회 기관과의 교육적 책임에 대하여 긴장을 조성하곤 하였다.

---

[63]김성수, *학교 및 학교교육에 대한 성경적 조망*,116.

[64]Ibid.,117.

예를 들면 고대스파르타 사회와 로마 사회, 근대 제국주의 시대, 그리고 후기 자본주의 사회는 국가가 교육의 기능을 독점하는 전형을 보여주었고,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국가를 지배하는 역사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현상들에 대하여 급진적인 학교 비판론자들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현행 학교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학습망(learning network)을 제시한다.[65]

그들은 교육이 국가나 교회 등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가정의 연장(축소된 사회 또는 배태(胚胎)적인 사회)으로서의 이상적인 학교모형을 추구하고 있다.[66]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Nicholas P. Wolterstorff는 부모가 자녀 교육의 일차적인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지만 부모 외의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 기관 역시 아동이 자신의 존재에서 기쁨을 발견하며 책임성 있는 삶을 영위하는 존재로 양육하는데 공동체적인 책임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였다.[67]그렇다면 교육적 책임에 대하여 학교와 다른 기관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하여 개혁주의적인 관점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학교와 가정과의 관계이다.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일차적인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 교육의 책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개혁주의적인 고백이다.[68]

---

[65]일리치(I. Illich)와 라이머(E. Reimer)가 대표적이다.

[66]김성수, *학교 및 학교교육에 대한 성경적 조망,* 120.

[67]신영순, *니콜라스 월터스톨프의 기독교교육 사상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146.

68개혁주의자들은 '쉐마'로 일컬어지는 신명기 6장 4-9절을 대표적인 근거로 제시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월터스톨프는 자녀들의 교육의 성격을 결정하는 부모의 권리는 모든 인간 권리들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언론 자유의 권리보다도 더 근본적인 권리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일차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인간 존재에 부여된 많은 값진 가치들이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하였다.[69]
그는 이처럼 부모(가정)가 자녀를 위한 교육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가정)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기에, 학교의 가르침이 부모 자신의 근본적인 신념과 일치하지 않으면 부모는 자신들의 신념과 일치하는 교육적 봉사를 다른 곳에서 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70]

2) 성경 속에 나타난 문화교육 및 언어교육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기억해야할 것은 바벨탑사건이 출발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식물과 동물을 각각 그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계속 반속해서 말씀하셨다. 창조의 사건 중에서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창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신 사건이다.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이 세상의

---

[69]신영순, *니콜라스 월터스톨프의 기독교교육 사상에 관한 연구,* 139.

[70]Nicholas P. Wolterstorff, *Educating for Life: Reflection on Christian Teaching and Learning*(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2),221.

피조물에게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책임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지켜보셨다.[71]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영역에 있어 인간에게 창조성을 부여하신 것이다. 번성함, 창조성, 다양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섭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이후에 모든 것은 왜곡되어 다양성은 더 이상 그 자체로 선한 것이 되지 못했다. 그 후 언어가 갈라지게 되는 바벨사건이 나타나게 된다.

또 말하되 자, 성읍(city)과 탑(tower)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city)과 탑(tower)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city)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72]

바벨사건은 탑(tower)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도시(city)에 관련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탑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군사적인 정복 내지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군림하고자하는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73]

---

[71]창세기 2:19-20.

[72]창세기 11:4-8

따라서 이것은 온 세상에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정면적인 불순종이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구약의 이야기는 발전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한다. 바로는 자기의 영토에 있는 이방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고통 속에 압제당하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집트인들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하나는 이방인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하나는 이방인들을 돌보는 것이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정체성 즉,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것은 듣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듣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인간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부르심이 있었다. 타인의 소리를 듣는 것은 시간, 헌신, 민감함, 순응성이요구되며, 타인이 외국인일 때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된다. 구약의 율법은 이방인 즉 타국인에 대해서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사랑하며, 정당하게 대접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74]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환대할 것을 요구하셨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방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중요한 관점으로서 드러난다. 신약에 이르러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Great Commission)에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과 아울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죄인 뿐 아니라, 세리, 사마리아

---

[73]David Smith & Barbara Carvill, *The Gift of the Stranger*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0),8.

[74]출애굽기 22:21, 레위기 19:33-34, 신명기 24:17.

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영접하시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 진정 강도 만난자의 이웃인가를 진지하게 물으셨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라고 양의 편에 선자들 에게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나그네 된 자와 이방인들을 영접하는 것을 성경은 매우 진지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방인들의 소리를 듣고, 또한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을 영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여기에서 우리는 외국어 교육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통찰을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오순절 사건을 살펴보아야한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은 구약의 바벨 도시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있다. 아래의 도표를 살펴보라.[75]

Babel (Genesis 11)	Pentecost (Acts 2)
Preceded by a call to fill the earth Gathering in disobedience God comes down Confusion results People cannot understand (Literrally "hear") one another Scattering	Preceded by a call to go into all the world Gathering in obedience God comes down Confusion results People miraculously hear one another Scattering (after some delay)

표 1.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사건의 비교 표

바벨사건에서는 죄로 인하여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으나 오순절 사건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회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방식으로 서로가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

---

[75]David Smith & Barbara Carvill, *The Gift of the Stranger*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0),14.

이냐" [76] 즉,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각각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중요한 부르심인 듣기(hearing)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 언어로 통합하지 않고 각 방언으로 듣게 하신 것은 언어적 다양성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증하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77]오순절의 회복이후에도 여전히 언어의 다양성은 유지되었다. 이것은 다양성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다양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이며, 바벨 사건으로 인해 다양성이 왜곡되었을 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외국어교사는 바벨의 사건 때문에 생겨난 직업, 즉 죄의 결과로 빚어진 직업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인 다양성 안에서 오순절 성령의 회복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직업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의도하신 축복된 다양성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것은 외국어 교육에 관한 중요한 성경적 통찰을 제시하는 것이다.

3) 교사에 대한 성서적 이해

성서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의 교사로서의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대표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신약의 예수그리스도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현대교회의 교사상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

[76]사도행전 2:8.

[77]David Smith & Barbara Carvill, *The Gift of the Stranger*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0),15.

고 신학적으로 교회학교 교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구약성서에 나타난 교사상

기독교교육의 역사는 히브리인들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히브리인들의 역사는 민족교육의 차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교육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의 교육은 기독교교육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삶 전반에 걸친 교육이었다.[78]

히브리 민족의 생활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사생활과 집단생활, 정치와 교육의 내용이 종교로 중심되었고 종교를 떠난 교육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쉐마 라는 교육명령(신 6:4-9)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사사역을 감당했던 구약시대의 뛰어난 지도자 모세의 교사사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세는 그의 이전에도 그의 이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다.

이는 신명기 34장 10-12절에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

---

[78]정정숙. *기독교교육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1997),37-38.

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는 없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을 교육하였고, 율법을 통하여 교훈과 생활의 일치를 도모하였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게 하였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임무 가운데 하나였다. 히브리인들은 신앙과 민족공동체를 통하여 생활교육을 받았다. 히브리인들의 교육은 구전적이고, 반복적인 암기 위주의 교육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도적인 학교교육 보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교육이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을 중요시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모세는 백성들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생활하며, 어떤 인간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교육하였고, 백성들에게 조언을 하며,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윤리와 시민법을 교육하였으며,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도왔는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를 가지도록 교육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당시의 교육적 상황에 따라서 모세는 율법교육이 생활교육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그 백성들에게 충실하게 전하는 훌륭한 교사였음에 분명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세시대의 교육은 체계화 되지 못한 비공식적 교육이었지만 율법을 교육의 기본 골격으로 하여 교육이 시행되었다. 이들의 교육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이루는 생활교육으로 구체화 되었으며, 또 종교의식을 통하여 교육하였다. 종교의식을 통한 상징적 교육을 함으로써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을 실시했다.[79] 이와 같이 족장시대의 히브리민족의 건국자요, 입법자요, 지도자였

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쓰임 받았던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의 지속(출 33:11), 자신의 능력의 한계성을 깨닫는 겸손함(출 18:24-27), 하나님을 향한 중보자(출 32:11-12)로 이스라엘 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인 열정적인 지도자였다. 이러한 모세의 절대적인 신앙의 삶은 모세의 뒤를 잇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모범적인 교사로서의 교훈이 되었다.

(2) 신약성서에 나타난 교사상

신약시대의 교육은 예수님의 교육사상이 기초가 되어 전수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C. B. Eavey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즉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의 구원자이시다.[80]

예수님의 언행은 우리에게 인생과 교육의 신학을 제공하며, 사실 그것은 최고의 질과 측량 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교육적 진리의 보고이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보다 견고하고, 확실해 지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기까지에는 기본적 진리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익숙히 깨닫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이 일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렇듯 신약에서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

---

[79]반피득.*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1999), 46.

[80]김근수, 신청기(역). *기독교교육사*. C. B. Eavey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소.1986), 89.

로 교육이 성도들의 신앙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신약의 역사에서 중요한 교육사역을 감당했던 예수그리스도와 바울의 교사상을 살펴보고 그들이 행했던 교육의 중요성과 권위에 대하여 고찰해봄으로써 현대교사에게 필요한 모범적인 교사상을 본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수님의 교사상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로 요한복음 13장 13-14절에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신약성서에서 4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다(마 8:19, 막5:35, 눅 7:40, 요 1:38).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칭호 가운데 ‘선생’이라는 말은 복음서에 42회 기록되어 있으며, 그와 유사한 뜻을 가진 랍비라는 말도 14회 나오고 있다.

또한 예수그리스도 자신도 자기를 가르치는 이(요 13:13)로 29회 이상 칭하였다.

권택조에 의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교사(선생)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다스카로스에서 번역된 말로서 흠정역(King James Version)에는 주(Master)로 번역되어있다.[81]

또한 Howard G. Hendricks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수그리스도는 전형적인교사였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르침의 모형과 교육학의 귀감을 제시하셨다.[82]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중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막 1:14-15). 둘째는 제자를 교육하시는 것, 곧 가르치시는 것

---

[81]권택조.*교사론*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56.

[82]유명복,한미경(역).*교수법 베이직*. 케네스O. 갱글, 하워드G. 핸드릭스외 달라스 신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진.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1999),13.

이었다(막 1:21-22). 세 번째는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었다(막 1:25-27).

넷째는 기도하시는 것이었다(막 1:35).이와 같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중의 하나인 교육에 있어서 Hendricks는 첫째,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은 그 내용이 진리에 순응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르침과 생활방식에서 그분은 지식과 행위를 실제적으로 연결시키셨다(마 5:36, 7:24-27). 셋째, 예수님께서는 참된 가치를 지향하셨다(막 12:13-17). 다섯째,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중요시하셨다(요5:1-15, 요 4장)라고 예수님의 교육사역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가르침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셨고(마 7:28-29), 최고의 모범이셨던 예수님(막 10:45, 요 13:15)의 모든 삶의 행동들은 하나의 규범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마 11:28-30). 예수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최고의 교사였다. 오늘날의 교회학교 교사들의 이상형이시며, 모델교사였다. 그는 인격적인 면에서 교사의 모델이 되었고, 행위적인 면에서도 모델이 되었는데 그의 삶과 사역과 죽음을 통하여 위대한 교사의 모델을 보여 주었다. 예수그리스도는 그의 공생애 기간 동안의 삶 자체가 진리였으므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삶에 본이 되시고, 우리의 교사가 되시기에 충분하였다. 마태복음 11장 25-30절에 보면 예수그리스도는 가르침의 내용에 있어서 최고의 교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마태복음 7장 28-29절에서는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방법에 있어서도 역시 최고의 교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에 그 가르침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생각했다. 이것이 교사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성경이 보여주는 교사상이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치심은 오늘의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모범과 도전

이 될 것이다. 교사들은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며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르치려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교사의 권위는 가르치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교육방법은 고차원의 진리를 저차원의 방식으로 전달하는데 탁월한 솜씨를 보여 주셨다. 이것은 비유법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도 탁월한 방법이었다.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전달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의 교회학교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 방법론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교회학교 교사는 학생과 함께 신앙 성장을 도모해 가는 사람이다. 교사는 학생보다 한 걸음 앞서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본받아서 권위있는 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교사 중의 교사요, 최고의 교사였으며 오늘날의 교회학교 교사들의 이상형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기독교인들이 아주 뛰어난 선생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

사도 바울 또한 성경적인 훌륭한 교사의 모습에서 그의 사역을 찾아볼 수 있다.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는 교사의 모습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2:15). 바울은 성경적인 교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성경적 교사상은 현대교회의 교사들이 가져야 할 교사의 원형이라 할 수 있겠다. 바울의 교사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로 그는 철저히 상대방 중심의 눈높이 교육을 하였다(고전3:1-2).

둘째로 바울의 교육목표는 의인과 성화였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심어주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화를 가르쳤다. 셋째로 바울도 역시 모범을 보여주는 교육자였다. 내가그리스도를본받는자가된것같이여러분은나를본받는자가되라(고전11:1)는 말을 자주 하였다 넷째로 바울은 양성적인 역할을 모두 수행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살전2:7). 다섯째로 바울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교육을 하였다(고전2:13).

이와 같은 바울의 교사사역을 통해 교회학교 교사들 또한 학생들의 상황을 알고 그 상황에 자신을 맞추는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신앙 상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바울의 믿음의 확신은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교사들 역시 담대하게 학생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은 항상 사랑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바울과 같이 교회학교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지해야한다.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뿐이다.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교육은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성령은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배우는 사람에게도 역사한다. 바울이 교육에 성공하였다면 그가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사사역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교사들의 헌신 위에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

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 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사역과 구약성서에 나타난 모세의 사역은 현대교회 교사들이 본받고 배워야 할 중요한 교사상이라 할 수 있겠다.

4) 교육학적 연구 질문

Russell은 WCC에서 서로 다른 교단과 협력한 경험, 그리고 다원화된 시대에 탈식민지적인 시각으로 성서의 환대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켰다.[83] 할렘 가에서 가난한 자들 중에 기독교 교육과 목회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기독교교육의 새 전망』(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을 펴내 기독교 교육은 세계 속에서 참 인간성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84]하는 증인 공동체로서 그 기능과 필요에 따라 가족형태구조(Family Structure),상설봉사구(Structure of Permanent Availability), 기동부대구조(Task force Structure)라는 독특한 교회구조를 제시한 바 있다.[85] 가족형태의 구조란 신약성서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종말적인 소집체로서의 가족(an eschatological gathering of God's people into household)으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 있기에 계급이나 인종의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확인한다(갈 3:27-28).[86]

---

[83]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84]Letty M. Russell,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Philadelphia: TheWestminster Press, 1967), 25.

[85]Ibid.,40-41.

서로 사이에 신뢰와 사랑, 연대감이 살아있는 가족의 특질은 가출한 10대 소년이 자기 집에 온 듯한(feel at home) 환대로 수용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댄 소그룹 속에서 굳이 연령별 교회학교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87]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전 연령층이 참여하여, 신약성서에서 바울이 강조한 서로 가르치며[88] 서로 짐을 지며, 서로 섬기기(롬 15:14, 갈 6:2, 엡 5:21)처럼 서로 친절히 대접하는 것이다.[89] 다원사회 속에 증인공동체의 여러 형태 중에 가족적인 구조 외에 대응적인 상설봉사기관(structures of permanent availability)은 증인공동체의 제반 구조를 세상에 대한 봉사의 기능에 따라 그리스도께 부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능하는 형태로서, 동적인 사회적 과정의 구조를 이해하고, 붕괴와 재생의 동적인 순환상태에 있는 가변적인 것으로 인식함으로, 선교처럼 하나님이 교파주의에 견고 강직한 교회가 역동성을 잃어버린 모습의 대안으로 제시하여 활발하게 지역 사회와 동행한다.[90] 미국 워싱턴 시의 구세주의 교회(Church of Saviour)에서 커피하우스, 미술품 점, 퇴수회장, 갱생센터 등의 모습으로 전도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실례로 들

---

[86]Ibid.,45-47.

[87]Russell,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7), 정웅섭 역, 『기독교교육의 새전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62-65.러셀은 가족타입의 증인 공동체에서 목사의 교육적 역할이 어머니로서 항시 집을 지키며 어떤 굳은 일이라 수 있게 하는 기동력이 된다고 하여 모계구조를 강조했다.

[88]성인들도 소집단의 성서연구에서 스스로 배우고 토론하며 목사도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함께 토론하는 중에 목사도 배우게 되는 공동학습에 대해 러셀은 말하는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에 성직자의 지나친 권위주의에서 자유로워야 할 필요를 성찰하게 한다. 위의 책, 72.

[89]Russell,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71.

[90]Russell,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76-77.

었다.[91]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교회를 개방하고 있다. 즉 지역아동센터, 마을도서관, 노인복지관, 방과 후 어린이 돌봄 교실 미술교실, 음악교실 등으로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회를 이뤄가고 있다.

다문화 선교공동체는 이러한 전도활동을 다문화 가정들에게 확대하고 환대함으로 시도할 수 있다.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지 않는 기동 부대적 구조(task force structure)는 모든 방법과 모든 시간을 활용하여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교회의 사명에 헌신하는 것으로서 인종문제, 복지문제, 신학문제 등의 소수의 전문가들이 유급, 혹은 무급의 형태로 리소스(resource person)로써 협력하여 정치, 산업, 경제 각 방면에서 특정한 문제와 씨름할 필요에서 팀이 만들어 지고 그 팀의 창조적 힘과 인재가 유효한 기간만 존속한다고 서술하였다. 이런 구조는 사회의 누룩으로 모든 불의와 인간 소외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방향을 찾아 새 길을 개척 한다고 했다.[92] 러셀은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교육구조가 곧 대화이고,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신 일을 축하(celebration)하는 것이라 했다.[93]

자신의 본성의 이기적인 중심을 벗어나서, 타인에게 봉사하는 참 기쁨을 체득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증거가 된다. 이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특성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주를 증언과 사랑에 의한 봉사활동을 통해 기뻐하고 축하하는 축하 교육

---

[91]유성준 저,『참된 교회를 이끄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서울: 평단, 2006)참조.

[92]Russell,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83-85.

[93]Ibid.,178.

(celebration education)이라 했다.[94] 인간화와 화해를 위한 교육 방법을 그리스도의 공동체적 삶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에게 다가오듯이 교사도 학생의 삶에 참여해야 한다.[95]고 했는데 러셀은 참여, 코이노니아[96] 파트너십[97]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다원화 시대에 아주 적절한 것으로 Just Hospitality는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다문화 가정 선교공동체의 신앙교육 내용으로 환대는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러셀 자신이 왜 신학자로서 환대를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한다. 그녀가 WCC 신앙과 질서 직제에서 일하면서(1977-1989) 여성으로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온 사람의 주장의 글은 단지 각주(foot note)로만 쓰이는 것을 경험하곤 했는데, Bell Hook가 쓴 글을 인용하여 주변에서 중심으로(Feminist Theory: From Margin to Center)[98]를 주장한다. Russell이 중심에서 주변으로 또는 주변에서 중심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주변

---

[94]Russell,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187-93.

[95]Letty M. Russell,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160-72.

[96]코이노니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된 역사 속에 있는 새로운 초점을 가진 관계성을 의미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가리켜신약성서는 코이노니아로 묘사한다....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 기초한 파트너십이다. 코이노니아는 또한 새로운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를 그 속에 담고있다. Letty M. Russell, The Future of Partnership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1979), 20.

[97]기독교인들에게 파트너십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파트너쉽 위에 기초한 상호성과 신뢰성의 관계를 의미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선택하셨다. 이러한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우리는 우리 자신, 이웃, 그리고 하나님과 파트너가 될 수 있다. Letty M.Russell, "Partnership in Educational Ministry", Religious Education 74 (1979 March-April),143.

[98]벨 훅스(Hooks, Bell)는 파울로 프레리의 영향을 받은 페미니스트이다. 한글로 번역된 글 Teaching to transgress : education as the practice of freedom, 윤은진 역,『경계선 넘기를 가르치기』(서울 : 모티브북, 2008)와, Feminism is for everybody :passionate politics,박정애 역『행복한 페미니즘』(서울: 백년 글 사랑, 2002)등이 있다.

인과 중심 인을 연결하는 것은 세 가지 특권이 있다고 했다.

첫째, 사회가 성별, 인종별, 계급별로 부여하는 정체성을 거절하면서 사는 것이다.

둘째, 주류 문화에서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교육적으로 밀려나 스스로를 주변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다.

셋째, 중심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과 겨룰 수 있고 동일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99]

Russell의 마지막 남편인 Hans Hoekendijk가 1966년에 쓴 The Church Inside Out567)[100]에서 강조한 것처럼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가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온 사역을 무관심 하는 면을 지적했는데 러셀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 안에(in but not of the world)있는 것을 직시하고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의와 화평과 그리고 환대의 사역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101]러셀은 타자라는 말을 쓰기를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들로서 아무도 타자일수가 없다고 했다.[102]

자본주의 사회이후 공업화된 사회에서는 종교개혁 시대처럼 은혜의 하나님 또는 은

---

[99]Letty M. Russell, Shannon Clarkson and Kate M. Ott ed., Just Hospitality, 3.

[100]호켄다이크의 글은 WCC안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사회참여를 외면하는 것을 지적하여 복음주의의 선교가 단지 교회에서 교회로(from the church to the church) 이어지는 전도로결코 세상과 교류가 없는 도식이라고 했고 이로 인해 에큐메니칼 선교의 폭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Hans Hoekendijk, “The Call to Evangelism", Norman Goodall ed., The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 Vol 39 (1950), 170.

[101]결코 세상과 교류가 없는 도식이라고 했고 이로 인해 에큐메니칼 선교의 폭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Hans Hoekendijk, “The Call to Evangelism", Norman Goodall ed., The InternationalReview of Missions,Vol 39 (1950), 170.

[102]Letty M. Russell, *Encountering the 'other' in a World of Difference and Danger*' (Harvard Theological Review, Vol.99. No.4 2006. 10), 458.

혜로운 이웃을 찾지 않고 이방인의 세계에서 은혜의 낯선 사람을 찾는다고 했다. 탈식민지시대에 백인 남성, 중년들이 이전에 적으로 간주했던 사람들의 그룹에 대해, 차이는 선물이요 정의의 행위로 연습해야할 환대의 기회라고 해야 한다.

사람들의 국적, 피부색, 성별 등 어떤 차이라도 주류문화의 정치, 경제, 사회의 기준으로부터 강제로 내재화되어 타자로 규정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같은 방식으로 주류 그룹들은 타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기피하고 그들이 잘 적응하는 어떤 기준들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차이는 종종 지배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103]

그러나 러셀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12-14절에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자들을 초대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여 사회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접하였음을 상기시킨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이니라(눅 25: 46)고 하여 환대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임을 증명하였다.

지구화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지배자나 노동자나 할 것 없이 그들의 정체성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문화와 인종 종교와 언어가 지구화의 영향으로 서로 뒤섞이게 된 것이다. 이는 각 종교 안에서도 변화를 일으켜 더불어 함께를 연습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104]

---

[103]Russell, *Encountering the 'other' in a World of Difference and Danger*, 460.

[104]러셀 자신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두 주간 모슬렘 학생들에게 가르친 경험이 있는데 그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를 배우고자 했다. “Report of the ATESEA(Association for Theological Education in South east Asia)lectures" Indonesia, 4-20 March, 2004, by Letty M. Russell and J. Shannon Clarkson.Letty M. Russell, “Encountering the 'other' in a World of Difference and Danger', (Harvard Theological Review, Vol.99. No.4. 2006),10.

러셀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바벨론의 의도했던 것은 하나 되고자 함은 통치와 지배를 위함이지만,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는 언어의 다양성 속에서도 서로를 각자의 언어로 이해(Gift of understanding)할 수 있는 소통의 선물이라고 했다. 다양한 언어로 들리며 각자의 언어로 말하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105]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할 수 있고 축하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성령은 중간의 막힌 담을 허시고 먼데 있고 가까운데 있는 것들을 불러 그리스도의 피로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을 가져오신다.(엡2:14) 다문화가정을 환대할 때 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복지와 인권 차원의 환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구도자로 대해 복음의 진리를 소개하고 가르칠 것인지를 분별한다. 믿음의 공동체로 받아들여 양육하서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자유해방을 누리게 하고 또한 그들의 민족에게 복음의 전파자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 환대하는 사람의 성육신적인 삶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성령의 전적인 역사 속에서 점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5) 교회 교육학적 해결방안

교회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각종 학교와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학생들을 실제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하다. 한국학교 또한 언

---

[105]Letty M. Russell, "Practicing Hospitality in a World of Difference and Danger" The Princeton Seminary Bulletin Vol.24. No.2(2003.5),208-09.

어의 교육을 통한 장을 교회의 장소만 빌려 쓰는 것이 아니기에 성경적인 교육 즉 이것은 단순한 교육 방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학교 학생의 영적인 문제이며 어린이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주제이다.

교회 학교 교육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신앙과 생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추구되어야 할 내용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자.

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거룩하시며 권능이 충만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육이 어린이의 신앙형성의 기초가 된다.

② 예수님에 대한 교육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다. 예수님의 생애, 사역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바른 교육이 있어야 한다.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친구이시며, 모범이란 사실을 정확히 가르쳐야 한다.

③ 성경에 대한 교육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메시지이다.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란 사실을 믿고 가르쳐야 한다.

④ 교회에 대한 교육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해야 한다.

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교육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의 원리를 가지게 하는 바탕이 된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이라는 기

본 원리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세계관은 크리스찬의 생활 철학이므로 어린이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한다.

교회 한국학교 교육프로그램은 교회의 실정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다.하지만 추구해야 할 근본 목적과 교육학적 해결 방안은 같다.

① 균형 잡힌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교육, 예배, 친교, 봉사, 전도라는 영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다양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한국학교를 통한 교회 주일학교와의 연계성,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각종 음악학교 미술학교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아름다운 교회는 음악학교(기타, 베이스기타 ,드럼)를 실시 중에 있고 한국학교 학생 중 연계가 되어 음악학교와 한국학교를 병행하고 있다.

③ 가정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참다운 교육이 있게 해야 한다.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방법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지.정.의가 조화된 전인격적인 교육이어야 하고 실제의 생활에 적용되는 살아 있는 말씀이어야 한다.[106]

6) 한국학교를 통한 문화교류의 교회사적 전망

(1) 초대교회 시대

---

[106]정정숙, *기독교 교육학* (도서출판 베다니 2000),220-226.

초대교회 시대에는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인간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외국인들은 야만인으로까지 생각하였다. 언어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수사학이나 정확한 표현 익히기, 시를 해석하기 등의 문법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문화적인 엘리트를 양산하려는 것이었다. 로마시대에도 헬라어에 대한 유사한 태도를 나타내지만, 보다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 로마 시대 초기에는 교육에 있어서 이중 언어(bilingual)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점차 로마의 모국어인 라틴어를 주로 교육하고 헬라어를 외국어로 가르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초기 서양의 외국어 교육은 모국어의 우월성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로마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미 라틴어가 지배적인 외국어로 자리 잡았으며 지역 언어(vernacular language)는 그 지위가 매우 낮았다. 신약시대에는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언어적인 지평에 새로운 확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선교와 성경의 번역과 해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언어적인 다양한 이슈에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실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데 Augustine은 고전적으로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보통 저급한 언어로든지 간에 어떠한 형식 보다는 메시지 자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107]

(2) 중세 시대

---

[107] David Smith & Barbara Carvill, op. cit,22.

중세시대에 들어와서는 안타깝게도 초대교회시대의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 교회의 지적인 리더들이 라틴어를 말하는 전통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로마의 수도사는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고자 기독교 교육과 고전의 학습을 함께 가르쳐야함을 주장했다.[108]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언어 간의 차이점을 논하고, 언어적 다양성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109] 그러나 그 또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가 온 세계의 언어가운데 가장 훌륭하며 신성한 언어임을 주장하였다.[110] 점차적으로 라틴어가 서양의 사회와 문화 전반을 지배하게 되면서, 교회는 라틴어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는 분명 복음전파에 방해물로 작용하였으며, 기독교 신앙을 나누고 교류하는데 있어서나 성도들이성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따라서 중세시대는 언어의 다양성에 대해서 굳게 닫힌 오직 하나의 언어(monolingual)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3) 중세 후기 (13세기)

중세 후기에 이르면 해외 선교에 새로운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오직 라틴어에만

---

[108]Flavius Magnus Aurelius Cassiodorus (ca.477-ca.570)

[109]Isidore of Seville (ca.560-ca.636)

[110]David Smith & Barbara Carvill,23.

주어졌던 관심이 다른 언어들에게로 서서히 옮겨가게 된다. 이에 공헌한 두 사람은 Ramon Lull과 Roger Bacon이 있다.

Ramon Lull은 1232년 말로르카의 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귀족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젊은 시절 방탕한 시기를 보내었다. 그는 31세에 극적으로 회심하고 그의 평생을 선교에 헌신하고 저작활동을 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언어를 숙지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는 궁정과 교황청을 오가면서 선교사 파송을 위해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대학을 설립할 것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그는 아랍어로 책을 출간하였고 이를 위해 아랍어를 마스터하고 코란과 무슬림의 전통을 연구하였다. 그의 제자였던 제임스 2세가 왕위를 이어받고 미라마(Miramar)에 선교 대학을 설립하였다. 이곳에서 선교사 파송을 위해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선교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라틴어가 아닌 그들의 언어로 듣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묵상의 책」(Book of Contemplation)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를 위해 외국어를 배우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탄 하였다.[111]Roger Bacom은 선교에만 초점이 두어졌던 외국어 교육의 목적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는 1214년 영국 Dorset에서 출생하였다. 옥스퍼드에서 수학 하였고, 파리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자로 명성을 날렸다. 그는 그의 저서를 통해 교황과 교황청, 관료들, 종교지도자들, 학문기관, 왕족에 대한 비판을 서

---

[111]Ramon Lull, Book of Contemplation (1929),39. “For the churches I see divers images andpaintings made, which will beautify them; but I see few men who will learn dives languages,of who will go and preach to the infidels, or bring them into the true way of life and leadthem from the error wherein they now are.”

습없이 하였다.[112] 그는 광범위한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였는데 특히 언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언어적 지식은 지혜를 얻기 위한 기초로서 그의 제자들에게를 최우선으로 강조하였다. 그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문법책을 썼으며, 아랍어 문법책도 계획하였다. 그의 저서「대서(大書)」(Opus Maius) 를 통해 언어 연구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왜 교회에서 언어학습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특히 그는 성경을 원어로 읽어야함을 강조했는데 언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잘못된 해석을 낳게 되고, 철학 작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언어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외국어에 대한 무지는 보다 일반적인 무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외국어 교육이 성경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물론 모두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더라고 차이점과 관련성들을 잘 이해하면 보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현대 기독교교육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주장들은 현대 외국어 교육의 목적과 연결되는 고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은

① 외국어 지식은 국제적인 정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심과 지식을 위해 유용하다는 것,

② 외국어 지식은 개인적인 여행에 있어 자기보호와 안전을 위해 유용하다는 것,

③ 외국어 지식은 국가 간의 보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서로 효율

---

[112] A. G. Little, *Roger Bacom's life and words* (Oxford University press, 1914), 1-31.

적으로 교류함으로서 국제적인 평화를 도모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현대 외국어 교육의 목적은 개인적 또는 국가적 이익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베이컨에 있어서는 타국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올바른 관계와 정의의 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이다. 베이컨은 선교에 있어 언어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개종은 그들의 언로 설교했을 때의 열매라고 말하였다. 언어는 무력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효율적인 외국어 학습을 통해 선교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문화적 종교적 울타리를 넘어서 평화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외국어로서 거룩한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된다고 언급하였다.[113]
13세기 이후 라틴어는 헤게모니를 점점 잃어가고 지역 언어들이 점점 부상하기 시작한다. 외국어 학습에 주목하게 되고, 보다 새로운 언어적 지평이 열려져 가는 시기인 것이다. 이제 13세기 이후 외국어 교육은 이제 교유의 기독교적인 강조점들 즉, 타국에 축복이 되는 것, 모든 언어화자의 인간성을 인식하는 것, 이방인을 돌아보고, 그들과 화해하는 것 등을 회복하는 중요한 접촉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4) 종교개혁 시대

16세기 종교개혁의 물결을 따라 종교개혁자들은 교육에 있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내었다. 마틴 루터가 그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시의회 의원들에게 기독교 학

---

[113]David Smith & Barbara Carvill, 33.

교를 건립 운영하도록 호소한 글”에서 독일 교육이 진정으로 필요한 가치 있는 책들 대신에 멍청하고 가치 없고 해롭기까지 한 그러한 책들을 공부하고 있으며, 젊은 이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없으며, 어느 누구도 공부하고자 하지 으며 그저 바보로 남는 편이 낫겠다고 말하는 정도라고 하였고, 그러한 학교를 이르러 악마 양성소(devil's training center)라고 까지 말하였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와 사회개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였고 이에 교육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혁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의 기능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졌다.[114]루터는 학교의 주체를 교회에서 국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 개념의 기초를 제공한 것인데, 이는 그가 ‘공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루터는 학교에서 무엇보다 언어와 7자유교과와 역사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5] 그는 특히 언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성서를 잘 이해하기위해서 언어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으며, 그의 교육사상에서는 학문의 깊이와 교류를 위한 어학교육의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116]

루터는 아울러 언어학습 방법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어는 실제적인 연습과 사용을 통하여 더 잘 습득할 수 있고 더 빨리 배울 수 있으며, 교실에서나 혹은 책

---

[114]오인탁 외 공저, *위대한 교육사상가들1* (서울: 교육과학사, 1996),349.

[115]Ibid.,365.

[116]최태성, *루터의 교육사상*(루터연구12, 1997), 83-96.

보다 가정에서나 거리에서나 교회 및 학교에서 실제로 쓰는 회화를 통하여 보다 더 용이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능한 어린이들이 즐겁게 언어를 배우도록 해야 하는데, 문법을 강조한 교육은 학생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어교수에 있어서의 근본적인변화는 찾기가 어렵다. 중세적인 모델을 벗어나지 못하고 문법적인 훈련에 주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어학습의 초점이 외부세계가 아닌 학문적인 유산을 구성하는 텍스트 안에 갇혀있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으며, 언어교육에의 보다 근본적인 재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현대교육의 창시자, 세계의 교사라고 일컬어지는 코메니우스는 1592년 3월28일 현 체코공화국의 모라비아 지방에서 태어났다. 코메니우스는 형제교회최후의 감독이자 신학자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성경을 토대로 사실주의 교육을 정립다. 코메니우스의 일생은 고난과 불행의 연속이었다. 10세에 역병으로 부모를 여의고, 헤르보른 대학과 하이델베르크대학 등에서 수학 후 귀국하여 교사로 청소년들을 가르쳤으나 30년 전쟁(1618~1648)으로 조국이 멸망하고, 아내와 자녀를 잃게 되었다. 그 후 망명생활로 일생을 보냈다. 그는 영국정부의 초정으로 스웨덴과 헝가리의 학교개혁에도 참여하였고, 일생동안교육 철학에 관한 200여권의 저서와 논문을 펴냈다. 그는 언어교사로서 일하였으며 두 권의 언어교과서 Janua Linguarum Reserata(Gate of languages unlocked,열려진 언어의 문,1632)와 Orbis Sensualium Pictus(World of sensory things in pictures,세계도해,1658)를 제작하여 대성공을 거둔다. 이는 16개 국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는 현대 언어교육의 초석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근거해 인간을 지성적, 도덕적, 신앙적 존재로 해석하고 인간의 전인성은 곧 인간의 내면세계에 내재하고 있는 지성과 덕성과 경건의 씨앗을 계발해야 한다는 통전적인 개념으로 규정했다.

코메니우스는 이와 같은 신학적 교육철학을 토대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범 교육(汎敎育)을 주창했다.

그의 범 교육 사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자연의 원리에 의한 '모든 방법'으로 배움 받아야 한다는 우주적 보편 교육사상이다. 코메니우스는 세상의 모든 분쟁과 갈등과 싸움은 단편적이며 왜곡된 지식과 그것을 교육하는 단편적인 학문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든 지식과 학문을 통합하는 범지학(汎知學) 사상을 고안, 발전시켰다.[117]

현대적 맥락에서 그의 범지학은 다양한 식과 학문체계를 활용하는 학제간의 통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교육의 기본 목표를 학문과 덕성, 경건으로 설정하였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계급과 성별과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실로 급진적인 교육적 사상을 펼쳐나갔다.[118]

그의 이러한 사상은 언어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는 언어를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간주하고 성실히 연마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라틴어에 대한 입장 또한 선구자적이다. 그는 라틴어만을 강조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반대하였다. 그는 어떠한 언어도 열등하거나 연마하기에 가치 없는 것은

---

[117]Klaus Groß mann & Henning Schr er, *Auf den Spuren des Comenius*, 정일웅 역, *코메니우스의 발자취*(서울: 여수룬, 1997), 36-39.

[118]이숙종,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 (서울: 교육과학사, 1996), 219-220.

없다고 하였다.[119] 지역 언어를 연마하는 것은 인간의 창조적 사명에 있어 중요한 것이며, 이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한 도구임을 강조하여 자칫 다양성과 이질성이 불러오는 의심, 분리, 적개심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하였다. 그는 언어교육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언어학습용 교과서를 제작하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며, 특히 단어와 이미지를 같이 연결하는 그의 시도는 시청각교육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교과서의 선택에 있어 단지 실용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과 인간세계의 모든 면을 나타낼 수 있는 지혜를 위한 교과서를 선택해야한다고 하였다. 코메니우스에게 있어 언어교육은 그의 교육과정에서 분리된 어떠한 특정한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미덕, 경건을 목표로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동일한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는 현대 기독교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그 함의점이 크다. 외국어 교육이 단지 학생들로 하여금 외국어를 습득하게 하고, 지식을 얻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 교육 역시 모든 기독교교육을 아우르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하는 것이다. 그는 언어의 교수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오늘날 언어교육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원칙들이 있다.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낱말을 그것이 나타내는 사물에서 떠나서 학습하면 안된다. 언어를 너무나 철저하게 학습할 필요는 없다. 어린이들에게는 흥미로운 교재를 사용하여 연습해야한다.

---

[119] J.A. Comenieus, *The Great Didactic of John Amos Comenius,* 정확실 역, *대교수학* (서울: 교육과학사, 1987), 216.

모든 언어는 규칙으로보다 실제 연습으로 학습하는 것이 더 쉽다. 규칙은 일단연습에서 얻은 지식을 돕고 견고하게 한다. 새로 배우는 언어에서의 처음 연습은 이미 잘 아는 교재를 다루어야 한다.[120] 이러한 언어 교육의 원리들은 현대 언어를 학습하는 현장에서도 매우 유용한 앞선 생각이었다. 아울러 그는 언어 교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먼저 언어적인 자신감이 필요하며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건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교사가 말하는 방식이나 타인과 관계하는 법 등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교사는 도덕적 통합성과 깊은 신앙심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사의 이러한 미덕은 학생들의 배움의 과정이 쉽고 즐겁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려운 분위기 대신에 사랑과 존경, 자신감을 키우게 한다는 것이다.[121]그는 이성주의를 반대하였으며, 언어학습에 있어 기계적인 암기와 문법위주의 학습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해가 암기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교수학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사람이지 앵무새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122] 아울러 감각경험의 중요성과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또한 학습에 있어 놀이와 즐거움은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대화나 역할극의 형식, 경쟁적 활동 등도 사용할 것을 권하였다.

그는 이상적인 학교를 기쁨의 동산(garden of delight)으로 표현하였다.[123]

---

[120]Comenieus, *The Great Didactic of John Amos Comenius,*217-220.

[121]Klaus Großmann & Henning Schr□er, op. cit., 175.

[122]J.A. Comenieus, op. cit., p. 217. "for it is men we are forming and not parrot"

[123]Klaus Großmann & Henning Schr□er, op. cit., 175.

코메니우스는 교육에 대한 앞선 사상들과 더불어 현대 언어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합의점 을 갖는 탁월한 생각들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5) 현대의 관점

다문화 기독교교육은 심리학과 사회학의 간학문적인 이해를 가진다.[124] 머슬로우의 욕구 이해에 대한 다문화 기독교교육의 적용과, 학습이론을 다문화 이론에 적용하고, 발달 단계별로 어린이와 사춘기 성인의 경우 어떤 다문화적 기독교교육이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극이 과거의 정보와 다를 때 새로운 이해가 요구되는데 피아제는 이를 조절(accommodation)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두뇌는 이전의 경험에 근거하여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며 이를 동화(assimilation)작용이라고 한다. 피아제는 주어진 자극과 두뇌의 표현이 너무 달라 심리적인 불편으로 균형을 잃을 때 사람들은 동화에서 조절로 옮겨간다고 했다. 다문화 기독교교육의 교사는 학습자의 편견의 한계와 융통성을 넓히도록 도와야한다.[125] 좋은 다문화 기억은 학습자가 다문화에 개방적인 자세를 갖게 한다. 다문화 기독교 교육자는 두뇌를 하나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로 보아 한다. 어느 문화가 좌뇌나 우뇌의 기능이 강

---

[124]Donald Ratcliff,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Barbara Wilkerson edt,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Birmingham, Alabam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7),93.

[125]Ratcliff,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96.

조되어 개발되었다고 우등하거나 열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지, 직관, 예술과 지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모두수용하고 기독교교육의 노력으로 시도하여, 언어와 비언어 상징 모두를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문화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려는 시도로 다양한 성격들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126] 다문화적 기독교교육의 효과는 어느 정도의 상호변화를 위한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다문화적 관계성이 영향을 받는다. 다문화 교육에서 동기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127]도널드 래드클리프(Donald Ratcliff)는 Maslow의 인간욕구를 다문화에 다음과 같이 적용했다.

① 육체적인 욕구로서 다문화적 기독교 교육에서 무엇보다 이 첫 번째 필요에 주린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된다.

② 안전에 대한 욕구로서 서로 다른 인종 그룹에 이런 필요를 채우면 종교교육을 수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③ 사랑의 필요의 단계이다. 다문화 종교교육에서 사랑은 가르칠 때의 언어보다는 행위로 표현될 때 문화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④ 다문화 기독교 교육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문화에 우월감을 갖지 말고 소수민족들이 열등의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⑤ 자아실현으로서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극치의 경험이다.[128]

Maslow의 영, 혼, 육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이주민에게 적용해 보면, 그들은 갑작스

---

[126]Ratcliff,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98-99.

[127]Ibid.,99-100.

[128]Ibid.,100-102.

런 음식문화의 변화와 심리적, 육체적 위축의 문화충격에서 고국의 음식을 먹을 때 심신이 회복하게 된다든지, 또한 비자문제와 거주의 불안정으로 정착의 와중에 있는 현실적인 이들의 필요에 정서적인 필요와 사랑을 공급할 때 식탁의 환대와 아울러 친절한 섬김이 이들의 영혼을 열 수 있다. 게다가 겸비한 자세로 그들을 경청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를 줄 때 그들은 기꺼이 문화의 장벽을 넘어 친구가 되고자 한다. Donald Ratcliff는 만일 흑인 폭동에 관한 뉴스나, 무슬림의 테러에 관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게 될 때나, 타인종의 무리에게 둘러싸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한다고 한다. 반대로, 그는 왓슨의 조작적 조건형성에서, 강화를 받아 발생빈도가 증가된 피험 동물의 특정 행동이 강화의 중단으로 발생빈도가 감소하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는 소거 (消去)현상처럼, 흑인이나 무슬림의 우정은 인종차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한다고 했다.[129] 다문화 선교 공동체에서 우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고 점차적인 것이므로 시간이 소요되고 인내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강화가 쌓이면 관계가 서로의 중심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널리 선전하는 기회가 온다. 다문화 경험 자체가 하나님의 폭넓은 사고와 사랑을 경험하는 기독교교육이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인 남성우월주의, 백호주의, 서구문명에 대한 격하, 소수민족과 여성에 대한 얕잡아봄과 같은 편견의 원형기억을 되살려 선입견을 바꾸도록 도울 수 있다. 건강한 기독교 다문화주의는 어린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태도, 위협적이지 않고 균형있는 경험이 되어야한다. 개 교회 기독교교육가들이 다문화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고

---

[129]Ratcliff,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102–03.

있는 선교사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선교사들이 직접 학습자들에게 보고하는 사례를 통해 학습 될 수도 있다.[130] 또 다른 가능성의 태도는 '자기 충족적인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으로 로센탈(Rosenthal)이 말한 교사의 기대를 통해 어린이들이 실재로 그 능력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131] 만일 주류사회가 소수민족 자녀들을 대하여 그런 기대감을 가진다면 그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다문화 기독교교육은 인지발달과 성장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교육해야한다. 선교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다중문화를 경험하면서 자라게 된다. 이들이 부모를 따라 4-5년마다 한 번씩 부모의 문화권으로 돌아오면 그들의 정체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이방인으로 느낀다. 그들은 또한 선교지 문화와 자신을 동일시하지도 않는다. 이런 초문화 경험은 선교사 자녀들의 시각을 확장하고 문화적 가치들에 대해 다른 어린이들과 비교할 때 쉽게 마음을 열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다중언어를 구사하고 다문화에 잘 적응한 어린이들이 세계화의 시대에 역할이 지대하다. 여러 인종이 단순히 함께 거하게 되면 더 많은 문제만 드러난다.

다문화 종교교육은 많은 계획과 의도된 교육과정, 방법을 필요로 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 모두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경험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132] 정체성 정립이 중요한 사춘기 시절에는 사회의 구성과 신앙이 중요하고 부모님의 가치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 기독교 교육은 청소년 시기에 종교와

---

[130]Ibid.,110-11.

[131]Rovert Rosenthal and L. Jacobson, *Pygmalion in the Classroom*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m, 1968),115.

[132]Rovert Rosenthal and L. Jacobson, *Pygmalion in the Classroom*, 119-20.

문화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들의 영적, 정신적 세계를 강화하여 세계관을 넓히게 해준다.[133] 십대에 그룹으로 다른 종교,인종,문화 속에 들어가 대화하고 피드백을 가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좀 더 객관화 하고 자신의 틀을 넓히게 한다.

사춘기 시절의 형식적 조작기 인지능력은 다문화 종교적 상황이 애매모호함과 가능성들의 도전을 받을 필요로 인해 그 인지수준을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종족의 유산을 받지 않은 학습자는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는다. 소수민족 자녀들은 이중문화속에서 자신의 고유의 문화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고 이중문화의 갈등 속에서 어느 문화와도 자신을 온전히 동일시하지 못한다.[134]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기독교교육가는 어느 한 지배적인 문화를 벗어나 다문화 종교의 이상을 제시하는데 현실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실제적인이상향들을 향해 한걸음씩 다가가도록 해야 한다. Selman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전기에는 사회적 관계성의 체계를 이방인으로 바라보다가 청소년 후기나 성인이 되면 사회 전반적인 관점을 그들 자신의 관점으로 받아들여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35]

샐만은 유치원 시기를 자아 중심적 시기, 학령기를 하나의 관점(one-perspective)을 받아들이고, 이른 사춘기에 자신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들의 견해를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십대가 되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제 삼의 견해(a third-person perspective)를 인식하고, 좀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다문화적인 견해는 그 이후에

---

[133]Ibid.,121.

[134]L. Steinberg et al, *Ethnic Difference in Adolescent Achievement*, American Psychologist, (June, 1992), 723-29, 위의 책, 122에서 재인용.

[135]R. Selmam, *The Growth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New York: Academic,1980), 위의 책, 122에서 재인용.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다문화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들과 사람들은 그의 이론의 일반적인 적용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 한다.성인 초기 가정을 갖기 시작할 때 이성(opposite)의 다른 문화를 다문화교육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룹별로 다른 나라의 성 역할이나, 인별로 기독교인의 사랑과 데이트를 비교 발표하거나 연극으로 해보는 것도 좋은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중년과 노년에 자신의 인종 그룹을 벗어나 봉사할 기회를 갖거나 외국으로 비전 트립과 선교에 가담해 봄으로써 중년 이후의 외골수와 편견에 빠지지 않고 자신과 다른 입장의 사람들의 삶을 통합하여 진정한 성숙함에 이를 수 있다.[136]

다문화적인 포용성은 교육에 있어서 자신을 넘어서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다문화 선교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에게 환대는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요 기독교의 핵심가치이다.

[136]Donald Ratcliff,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Barbara Wilkerson edt,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123.

III. 미주 한인이민교회의 한국학교의 여건과 운영상의 특성

1. 한인 이민교회의 한국학교를 통한 교회 선교전략

1) 한국학교를 통한 문화교류 및 교육

언어는 인간의 사회생활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본 수단이며 의사소통 상황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와 결합되었다.
이는 학습자가 목표어를 사용해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원만히 수행함에 있어 문화적 숙달도 없이는 힘이 들며, 언어 교육의 목표를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기능 수행이라고 볼 때 언어와 문화는 통합해 교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주는 말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언어교육에서는 언어를 문화의 영향을 받는 의사소통의 일부로 이해하게 되어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언어교육에서의 의사소통이란 언어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문화적 행사로 이해하게 되었다.[137] 언어교육에서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볼 때 전통적 언어 교육은 언어 능력에만 치중하였으나 최근 언어교육에서의 문화 능력(Cultural competence)은 외국어 교육의 다른 능력들과 동일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문화능력에 대한 정의 변화를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

[137]최용재. *영어권 문화의 교육,* 호남영어교육학회 영어교육총서 3,(서울: 한국문화사,1999),8.

Canale& Swain은 의사소통 능력을 문법, 사회 언어적, 담화, 전략적 능력으로 분류하고 문화를 사회 언어적 능력에 포함시켰다.[138]

그러나 Lusting & Koester는 간문화(intercultural)능력이란 용어를 썼는데 어떤 문화가 관련됐던 간에 간문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으로서 결과보다는 개인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과정을 중시했다.

Byram은 간문화간 소통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이란 개념을 사용했는데 위의 간문화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다 포함시켰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언어능력, 사회언어능력, 담화 능력, 간문화 능력으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간문화 능력이며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나라나 문화에서 온 사람과잘 통할 수 있고 자이나 타 문화권에서 온 사람이 다 만족할 정도로 서로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다른 문화 출신자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였다.

세계화 시대, 다중문화를 경험한 인재가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론이다. 이렇듯 언어교육에서 문화능력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재미동포 아동은 한국어를 배우는데 있어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이민 1세대인 부모들이 한국적 인식과 전통적 문화를 갖고 있으므로 한국의 전통 예절 및 의식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한인 공동체 사회에서도 이를 실행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

[138]Cannal, M., & Swain, M,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pproaches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atesting*,Appliedlinguistics1(1980),1-47.

여기에 주말 한글학교에서는 따로 문화 시간을 두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인 교사, 학부모, 친구를 통해 한국인의 정서와 심정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1.5세와 2세들이 부모가 되어 자녀를 가르치게 되는 최근상황에서는 가정에서의 한국문화 및 한국적 정서에 대한 경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글학교에서의 문화교육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중요해질 것이다.

2) 한국학교를 통한 문화 선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양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즉, 세상 문화를 바르게 인식하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의 방법으로 해석되고 전달될 수 밖에 없다. 선교의 대상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기에, 문화와 선교를 서로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와 문화는 서로 분리되거나 양분화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신적인 가치가 문화의 형태 속에 곳곳에 스며져 있기 때문에 교회와 문화는 함께 가는 것이고, 하나 된 선교적 가치를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문화선교는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진행하지 않아도 세상 속에 있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을 향한 갈망을 드러내고 밝히며, 그릇되거나 왜곡된 문화를 바로 잡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문화선교는 궁극적으로 교회와 문화사회를 향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선교적 방향이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지상최대의 명령이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139] 문화선교의 기본 중심은 기독교 진리에 입각하여

문화적 도구를 바르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독교 문화가 보다 넓게 풍부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인간이 누리는 삶의 모든 전반적인 행위 속에서 곧 세상 문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적절하게 세상을 향한 의사소통적 방법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만들어 가는 입체적 선교가 필요하다. 문화선교는 교회가 사회를 향한 시대적 책임을 가지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교회가 기독교 복음을 목적으로 모인 성도들이라 할 때, 사회를 향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복음 전파의 이중적인 과제 수행을 적절하게 연결하기 위한 사명 역할을 문화선교를 통하여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와 문화와의 평화스러운 만남이 곧 진정한 소통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문화선교를 통한 여가활동이 복음을 이어주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전인으로 만드는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 교회가 문화적 사각지대에 놓여진 사람들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140]

본 교회는 한국학교라는 문화 교육적 방법으로 세상에 접근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교육을 통한 지역 간의 소통과 접촉에 목표를 두고 있다.

---

[139]성경, 마 28:19-20.

[140]http://blog.daum.net/kulturundtheologie/8005103(accessed February 7, 2013).

IV. 연구과제 수행

1. 연구반 운영과 활동

1) 연구반 구성

본 연구자의 연구반은 연구의 주 대상이 되는 아름다운교회 교인으로 구성했다. 연구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구성을 했다. 아울러 기본적인 연구반 대부분이 현재 한국학교 교사임을 밝혀둔다,

성　명	연령/성	직분	학력	전문분야
심 유 미	50 (여)	중등 교사	대졸	중등교육
조 오 남	45 (여)	한글교사	대졸	교육
제 니 퍼	40 (여)	교 사	대졸	경영
손 영 란	36 (여)	교사	대졸	특수교육

표 2. 연구반원 구성표

2) 연구과제 수행계획

본 연구의 연구반의 운영은 주후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9개월간으

로 한다. 5월은 준비 단계로 함께 모여 연구반의 정의와 연구 내용, 적용 방법 등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모임을 갖도록 했다.

준비 단계를 거쳐 훈련단계에 들어서면 본격적인 연구반 운영에 들어간다.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의 일정으로 2회에 걸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체적으로는 3회에 걸쳐 세미나를 실시한다. 모두 한국학교 교사임을 감안하여 본 논문의 주제가 되는 한국학교의 선교적 고찰에 관련된 내용을 개론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교제 혹은 교안을 활용하기 보다는 Presentation을 활용하여 기본 설명과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본 교회의 한국학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끔 시간을 주고 질문을 준비해 오도록 지시한다. 또한 해결방법도 제시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이끌어 간다. 8월에 개강하는 한국학교의 일정에 따라 준비한 프로그램과 교사의 선교적 자세를 실전에서 평가하는 시기에 접어들어 스스로 교사의 평가안을 작성하게 한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실재 적용단계를 시작한다. 훈련기간의 세미나를 통해 얻은 내용을 어떻게 교회학교인 한국학교에 적용할 것인가를 실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적용과 그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 보다 나은 목표를 향해 지속적인 반복이 요구되는 단계이다. 따라서 매회 한국학교 수업 후에 교사 평가안을 작성하고 모여 회의하고 보완점을 찾아간다.

적용방법을 달리하여 그에 상응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평가단계이다. 수개월 동안 진행되어 온 한국학교의 교육을 통한 교육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장단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기간 2012년-2013년		연구 활동	연구조사내용	비고
준비	5월	논문 설명회	모임 및 설명	한국학교 교사
훈련/교육	6월	1차 소집/세미나	교사 소집/교육	
	7월	2차 소집/세미나	교사 소집/교육	교사강습회
적용/개강	8월	훈련	교사 지도	한국학교 개강
	9월	적용	프로그램 적용	추석민속행사
	10월	중간 점검	한국어시험	레벨 테스트
	11월	상담	설문조사	학생 상담
	12월	3차 소집/세미나	교사의 직무	한국학교 종강
평가	1월	교육 평가	한국학교 교육	2013년
	2월	논문 적용평가	적용과 개선방향	개강(봄)

표 3. 연구과제 수행계획표

2. 연구과제 수행내용

1) 1 차 세미나

본 논문에 연구반원들의 첫 번째 모임으로 한국학교에 목적과 논문의 방향성을 새로 수립하고 선교적 관점에서 교회학교의 한국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를 토의를 한다. 각각 한국학교 교사들의 교육방법과 경험들을 먼저 나누고 장단점들을 서로 토의하며 한국학교의 장점과 아름다운교회의 특성을 잘 조합하는 토론위주로

모임을 주도한다. 논문의 주제가 선교적 정책수립이기에 한국학교의 교육과 기독교교육의 연관성을 주지하고 좀 더 효과적인 한국학교를 위한 집중적 토론을 했다.
교사의 선교적 관점과 자세를 훈련하고 성경공부를 통해 교사의 평신도적 선교사로서의 전환과 고찰이 필요해서 함께 같은 목표로 한국학교를 진행하는 파트너쉽이 필요함을 교육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기술과 경험을 통한 교육방식이 아닌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국학교교육을 통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어주는데 교사의 의무가 중요함을 숙지시켜 주었다. 앞으로 한국학교를 통해 이루어질 교육을 통해 성경을 바탕으로 선교적 의식의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각자가 맡은 교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의 선교와 한국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문화사역을 통한 복음의 역할을 할 것을 상의 하였다.

2) 2 차 세미나

본 논문의 연구반 두 번째 모임에서는 문화선교, 문화교육, 문화전도라는 주제를 놓고 토의를 하였다. 1차 세미나를 통한 교사의 헌신과 선교사적 사명의 고취를 역설한 가운데에 이론적으로 준비하고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문화란 무엇인가. 또한 이 문화를 통하여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문화적 접근을 통해 더욱더 한국학교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 문화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선교전략을 토의하였다.
본 연구반원들이 위에 주제를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교회한국학교의 적용적

인 측면이 약하고 교사강습회 같은 강의를 통해서 이론적인 배경을 넓히고 실제적인 측면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어 내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서로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론을 토의하였다. 그 중 교사의 믿음과 교회의 헌신이 중요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며 틈틈이 성경이야기와 기도, 예배 등을 통해 한국학교의 커리큘럼을 새롭게 정립하자고 의견이 나왔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카드와 수업전후의 기도, 식사기도, 한글테스트 중 어린이성책 읽기, 받아쓰기 등 자연스럽게 성경을 통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어 찬양 익히기, 율동 익히기 등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왔다. 기도문을 쓰기, 대표기도하기 등 중급이하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발표를 유도하며 더욱더 중요한 안건은 교회한국학교의 이미지와 커리큘럼을 교회교육에 초점을 맞춰 교육시키고, 일반 한국학교의 아닌 교회에서의 독특한 교회한국학교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정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 안건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교회한국학교의 숙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한국학교와의 교육의 정도의 질을 높이고, 차별화된 교회한국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한국학교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목소리를 함께 하였다.

3) 3 차 세미나 (교사 교육 강습회)

1,2차 세미나를 통해서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알기에 로스앤젤레스의 교사전체

의 교육원방문과 각 교회의 한국학교의 모임과 2012년 10월에 샌디에고 갈보리교회주체로 열린 교사교육세미나를 통해 한국학교의 새 한글프로그램 등을 익히고, 교사의 재교육에 아름다운 교회의 한국학교 전교사가 참여하였고, 많은 도전과 배움을 통해서 아웃리치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샌디에이고 교회 한국학교연합모임을 한 달에 한번 씩 결정하고, 서로 교재진도와 기도제목을 나누고, 성공적인 프로그램 등을 서로 공유하며 정보제공을 하기로 샌디에고 여섯 교회(갈보리교회, 소망교회, 한빛교회, 아름다운 교회, 샌디에고 천주교회, 칼스배드교회)가 연합을 하였다. 정기모임을 통해 본 교회에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자문을 받았다.

현재 한국학교 교사를 위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예배: 교사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 예배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독교교육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141]

모든 교사는 교육의 주체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학생과 동일한 학습자이다. 즉, 기독교교육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다 학습자이므로 교사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영성을 다지고 가르침에 필요한 성경 및 교리 연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교사의 소명에 응답해야 한다고 예배의 중요성을 말했다.

② 기도회: 교사는 하나님이 맡겨 주신 양을 돌보라고 부름 받은 사명자이다.[142]

교사는 학생들과 만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의 영혼을 일깨워줘야 한다.

---

[141]김희자, *창의적인 기독교 교육방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2004).

[142]송삼용, *교사는 또 다른 목회자* (서울: 작은 행복.2000), 65.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신 후에 능력을 힘입으셨다(눅 4:4-8).

영혼을 일깨우는 비결은 기도에 있고, 교사들이기도 하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으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 또한 훈련이다. 시간을 우선적으로 할애하여 기도를 생활화하므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교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감사와 기도에 대한 열정이 더욱 충만해 질 것이다. 영혼을 일깨우는 수단은 기도와 성령이다. 교사의 무릎만이 학생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다. 교사들은 부서에서 하는 모든 기도훈련에 참여해야 하며,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에 더욱 힘써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것이다.

③ 정기기도회:

ⓐ 매주 기도회 - 수업 전 30분부터 경건회 및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다.

ⓑ 매월 기도회 - 한 달에 한번 월례회/기도회로 모여서 반 별 상황을 파악한다.

ⓒ 교사교육부 주최 기도회 - 부서별 발표 및 기도회로 모여 모든 교회학교 부서들의 동정을 안다.

④ 성경 교육: 교사는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QT)하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교사는 성경을 잘 알아야하며, 또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도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계속적인 성경공부와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 하여 수준 있고 권위 있는

교사로 학생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 교사 Q.T – 전교사들이 Q.T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 교사 성경공부(소그룹별) – 매 주일 예배 후 시간을 정하여 그룹별로 모여 성경을 체계 있게 공부한다.(생명의 삶)

⑤ 견학, 관찰, 시범 교수 학습

ⓐ 연중 1-2회의 시범 교수 학습 관람을 하고 토의하며, 타 교회 교육현장을 방문, 견학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 교사 연구모임을 만들어 한 달에 한번 주제를 정하여 연구 발표회, 토의, 좌담회, 연구수업 등은 교사들의 자기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

4) 교사의 자기훈련 프로그램

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는 교사이다. 교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으며(엡 4:11-12),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위임을 받은 자이다(요 21:15). 교사는 하나님의 일과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실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일과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사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관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격을 연마해 가며,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부단한 자기 연수를 통해서 전문적이며 인격적 수양이 된 교사로서의 지도성을 갖춰야 한다. 교사의 참된 지도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영성과전문성 및 리더십훈련을 생활화하여 권

위 있는 교사로 교육현장에서 헌신해야 할 것이다.

(1) 교사의 영성 훈련

① 은밀한 기도생활을 한다. 새벽기도 하기, 철야예배 참석하기, 금식 기도하기(특별한 때),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등 기도에 전혀 힘쓰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②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1일 3-10장),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과 삶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사가 되어야 한다.
③ 신앙 서적들을 통해 영감과 통찰력을 키우며 신앙의 활력과 도전이 될 수 있다.

(2) 교사의 전문성 훈련

①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공부에 참석한다.
② 교회교육 지도자 세미나나 정기 강습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배운다.
③ 기독교 교육 전문지를 읽는다.(기독교교육, 교회교육, 신앙과 교육 등)

(3) 교사의 리더십 훈련

교회학교 교사의 지도력은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교회학교 교사의 리더십은 일반 리더십의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독교적 리더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적 리더십은 성경적인 관점의 리더십을 의미하며, 예수그리스도에 의해 대표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적 리더십은 세 가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① 섬김의 권위를 의미하는 종이며,

② 사랑의 인도자를 의미하는 목자이며,

③ 사역과 관련하여 청지기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성경적인 이미지로서 기독교 지도자의정체성을 보여주며, 예수그리스도의 리더십을 표상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리더십이건 리더십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권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셋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세 가지 리더십의 이미지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다.[143]

지도자 특히 기독교의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다양한 자질을 가져야 하는데 그 많은 자질 가운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기독교적 리더십 즉, 교회학교 교사의 리더십은 신앙에 근거한 다양한 자질들을 표현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믿음과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교육현장에서 교재와 교구들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 시키는 능력과 기교이다. 이와 같이 교사로 세움 받은 자들은 교회학교 교육과 리더십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식하고, 리더십의 방향을

---

[143]박상진. *한국교회의 영적부흥과 리더십* (제1회 소망신학포럼(강연3)2004), 100-101.

정립해야 한다. 교회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리더십은 구체화되어야 하고, 여러 측면에서 교사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하는데, 리더십은 개발되고 훈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는 리더십에 관련된 자질과 원리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훈련해야 한다. 리더십으로 무장해야만 학생들을 온전하게 성장시키는 교사가 될 수 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이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욱 영향력 있고 효과적인 목적을 위해 행동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144]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시지만 이것을 발전시키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재능은 결코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재능이란 특별한 분야에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잠재력인 것이다.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다. 지도력에 대한 재능은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나 믿음과 자기인식과 노력과 훈련으로 개발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교사가 되기 전에 우선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교육이라는 작용이 결코 단순한 지식의 전수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형성을 도와주는데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신앙교육은 교재나 교육환경 이전에 교사와 학생 사이의 영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과 학생에 대한 절대존중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또한 교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잡히는 교사가 되어야 하며, 항상 자기 노력을 하여 자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사들의 노력과 훈련을 통해 능력 있는

---

[144]최기준,*교사 교육 이제는 영성이다*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2003), 111.

리더로 무장하여 헌신할 때 영향력 있는 기독교교육 리더로 세움을 받아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부흥을 이루는데 공헌하는 교회학교 교사가 될 것이다.

이론적인 지식습득으로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겸손하며 학생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가르친다면 분명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육의 효과와 결과를 주실 것이다. 이번 논문과 세미나에서의 교사교육으로 한국학교교사의 지난날의 반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이 교사 리더쉽 훈련이 성과라 하겠다.

4) 선교 교육적 관점에서의 한국학교 적용

(1) 아름다운 교회 한국학교의 커리큘럼

한국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국어교육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것을 우리말로 바르고 논리 있게 쓰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한글교육의 시작이다. 또한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다른 외국어를 바르게 이해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한국문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난 후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접해야 자신의 의사를 그 나라의 언어로 바르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것을 우리말로 바르고 조리 있게 쓰고 말할 수 있게 지도함은 물론, 우리글, 우리문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함양함과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

러준다. 전체적인 한국학교 교육 커리큘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입생을 위한 입학 전 국어 기초지도 실시 및 레벨 테스트

② 저학년에서 국어 집중지도로 전 어린이가 말하기, 읽기, 쓰기의 완전학습.

③ 초급반 국어 소수반 지도 시간의 확보.(쉬는 시간, 활동시간을 활용한 개인지도)

④ 글짓기 대회, 말하기 대회, 독서기록장 쓰기 지도 충실.(숙제 및 학부모와 공조)

⑤ 각종 한국어 시험 대회 응시 권장 및 지도.(미주 한국교육원행사에 참여)

⑥ 학부모 volunteer 활용을 통한 가정과의 연계 지도.(현재 2명 volunteer 활용)

⑦ 주 교재 맞춤 한국어와 보조교재 재미 한국어교재 한국어 기초, 상하의 활용

⑧ 한 학기 전체 교사 강의안 발송 및 연간 캘린더 활용을 통한 한국어 교육지표.

⑨ 신앙 상담 기록지 및 일일 교사 학업진행 업무 기록 작성.

⑩ 활동 시간(오전 10:30-11:20) 보조 미술교사 및 volunteer 전문 교사 활용.

또한 신앙교육의 목적을 둔 교회한국학교이기에 선교적인 범주에서 기독교 교육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1.2.3차의 세미나를 거쳐 연구반원들이 결정한 교육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아름다운 한국학교 커리큘럼

시간	학습순서	학습내용	비고
8:30-9:00	교사준비 및 기도회	말씀Q.T	학습교육목표
9:00-9:10	반별학습준비 및 기도로	출석체크 및 숙제 점검	맞춤한국어교재

	시작		
9:10-10:00	각 반별 한국어 교육	교재 진도 나가기	초급/중급/고급
10:00-10:10	휴식		
10:10-11:00	민속 활동놀이/ 교회관련 만들기	제기차기, 태극기 만들기, 부채 만들기, 서예, 십자가 모양 만들기, 그림 그리기, 성경말씀 빈칸 채우기, 가위 바위 보게임. 찬양 율동 배우기, 부모님께 편지 쓰기.십자가목걸이만들기	
11:00-11:20	간식	학부모 자원봉사자 활용	학생대표기도
11:20-12:20	반별 한국어 교육	개인지도 및 심화학습	맞춤한국어교재
12:20-12:30	숙제 점검 및 기도로 마침	개인별 숙제 제공	1:1학생상담 및 기도
12:30-1:00	교사회의	교사 학업평가서 작성	기도회

표 4. 아름다운한국학교 커리큘럼

(2) 교회 한국학교 교사의 재교육

한국학교의 대상자는 거의 3-10세까지의 어린이들이다. 즉 교육대상도 어린이고 선교의 대상도 어린이다. 이에 어린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교사가 어린이 선교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어떤 프로그램과 첨단 장

비보다도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헌신된 교사이다. 한글교사는 한국학교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보면 준비된 교사 부흥 자체가 곧 어린이 선교로 연결되어 학교 부흥인 것이다. 교사가 잠자고 있거나 누워 있든지 앉아 있다면 어린이 선교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자연히 학교는 무너지고 어린양들은 죽거나 잠들고 누워있게 된다. 한 공동체에 교사가 일어나면 어린이들도 살아날 것이다. 이처럼 교사의 사명감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사회생활이 바쁘다보니 사명감 없이 헌신한다. 학교 교사는 사명과 사역이 세속교육의 교사들과 엄연히 다르다. 왜냐하면 헌신된 주일학교 교사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교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증인이며 하나님의 사자이다. 일찍이 칼빈은 초대교회에서 교사의 직무를 제1급에 속한다고 하였다.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헌신교사가 부족하다.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찾으신다.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사이면서 전도자이고 전도자이면서 교사인 사람이 이 시대와 교회에 꼭 필요하다.

(3) 교회 한국학교의 선교 전략적 프로그램(추석맞이 대행사 중심으로)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더욱더 발전시켜 아이들이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면 추석맞이 큰 행사에 부모들을 초청하고 전통 민족놀이와 전통음식을 만들고 같이 어울리며 한국문화를 실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

도 가졌다.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처음으로 8개의 교회연합으로 진행한 이번 2012년 9월 29일 추석대행사는 35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하였고, 여덟 개의 교회가 같이 진행하여 한국문화와 기독교적 교육을 배우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교회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은 본 논문의 주제와도 연관된 선교적 성과이다.

문화 전략적인 특성은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하였고, 전통 사물놀이공연과 부채춤 공연, 특히 한국의 한류와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이용한 전체 춤 행사에서 많은 호응을 이루었고, 5명의 외국인 학생들의 댄스 팀이 찬조를 와서 K-POP을 부르고 춤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식사시간에는 서로의 도시락을 머고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과 함께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지고 서로 음식문화와 음악에 대해서 더 나아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교류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더욱더 학부모와 학생 교사간의 의사소통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민요

강강술래

강 강 술 래 강 강 술 래 /
산아 산아 청계산아 놀기 좋다 모락산아 /
강 강 술 래 강 강 술 래
꽃이 피면 화산이요 잎이 피면 청산이라 /
강 강 술 래 강 강 술 래

강 강 술 래 / 강 강 술 래
달 떠온다 달 떠온다 / 강 강 술 래
우리 마을 달떠온다 / 강 강 술 래
저기 저기 저 달속에 / 강 강 술 래
우리소원 빌어보세 / 강 강 술 래

강 강 술 래 / 강 강 술 래
술래 술래 강강술래 / 강 강 술 래

뛰어보세 뛰어나 보세 / 강 강 술 래
육신 육신 뛰어나 보세 / 강 강 술 래
먼데 사람 듣기 좋고 / 강 강 술 래
곁에 사람 보기나 좋게 / 강 강 술 래
날이 좋다고 날아지 놀면 / 강 강 술 래
딸이 좋다고 딸아지 놀까 / 강 강 술 래

강 강 술 래 / 강 강 술 래
술래 술래 강강술래 / 강 강 술 래

그림 2. 추석맞이 전통행사 전통놀이 진행표 및 안내장

광 고

****

1. 미주한국학교 연합회 샌디에고 지역협회가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과 올바른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하나로 뭉쳤습니다. 현재 **양화버 회장(샌디에고 한국학교)**를 중심으로 각 학교의 운영자들이 일원을 같이 지역협회가 조직되었고, **매달 두번째 목요일 7 시**에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학교로 등록이 되지 않은 학교들과 새롭게 한국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샌디에고 지역협회 회장 : 양화버 ☎(619)/87-0306

2. '추석맞이 전통문화 행사'는 샌디에고 지역협회에서 지난 7 월부터 준비해 온 2012 년 하반기 첫 번째 행사입니다. 우리 고유명절 추석에 온 가족이 함께 추석의 의미와 놀이, 음식을 체험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샌디에고 지역협회 행사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3. 2012 년 SAT 한국어 시험 준비반 특강이 10 월 21 일, 10 월 28 일 일요일 2 시부터 5 시(3 시간)까지 **샌디에고 소망한국학교**에서 개설 됩니다. 강사는 현재 LA OO고등학교 한국어 교사이신 익태혁 선생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 주실 예정이고, **수강료는** $40 에 **교재비 별도** $60 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는 각 학교 교장 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샌디에고 지역 '한국어 교사, 학부모 학생, 세미나'가 11 월 3 일 오후 1 시 30 분부터 6 시까지 갈보리 한국학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 강사로 LA 3가 초등학교 교장으로 계신 **수지 오** 선생님께서 ' 강의주제???' 로 강의를 하주시고, 한국어 교사를 위한 수준별 시범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으신 분, 자녀들이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지 확실한 동기부여를 받지 못한 학생들 모두 환영합니다. (담당: ☎임난희 858-229-3952)

추 석

주석이란?

추석(秋夕)은 한가위, 중추, 중추절, 가배일로 부르기도 하며, 음력 8 월 15 일에 치르는 전통적으로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명절이다. 가을 추수를 끝내고 햅쌀과 햇과일로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며, 특히 송편은 추석에 먹는 별미로 들 수 있다. 추석에는 고향을 방문하는 전통이 있다.

****

추석의 풍습

추석에는 추석빔을 입고 햅쌀로 빚은 송편과 여러 가지 햇과일·토란국 등 음식들을 장만하여 추수를 감사하는 차례를 지낸다. 또한 맛있는 음식을 이웃과 다정하게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온갖 곡식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있는 추석은 가장 밝은 달인 보름달이 뜨고, 보름달을 보면서 달맞이를 한다. 또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성묘를 드리기도 한다.

****

추석의 놀이

추석 때는 여러 가지 행사가 펼쳐지며 놀이가 벌어지는데, 소싸움·강강술래·달맞이 등을 하고, 농악놀이도 하고 마을 주민들끼리 편을 가르거나 다른 마을과 줄다리기를 한다. 잔디밭이나 모래밭에서는 씨름판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이긴 사람을 장사(壯士)라 한다.

순 서

첫째 마당: 한국의 명절, 한가위 ………………… 10 시

****

둘째마당: 추석 놀이 체험 ………………… 10 시 30 분

강강술래 ………………… <갈보리 한국학교>
공기놀이 ………………… <샌디에고 한국학교>
닭싸움 ………………… <카톨릭 한국학교>
윷놀이 ………………… <소망 한국학교>
제기차기 ………………… <아름다운 한국학교>
투호 ………………… <한빛 한국학교>

****

셋째 마당: 추석 음식 체험(점심) ………………… 12 시

♣ 샌디에고 무용협회 공연 관람

****

넷째 마당: 추석 문화 체험 ………………… 12 시 30 분

♣ 추석에 관한 O.X 퀴즈
♣ 강강술래

****

그림 3. 추석맞이 전통행사 전통놀이 순서지

그림 4. 추석맞이 전통행사 전통놀이 교회 별 배치도

(4)교회 한국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교회정착 연계성[145]

주	제목	내용	진행시간
1주	친구 소개해주기	① 동일 연령과 동일 지역성도 배치 ② 함께 식사하기	30분
2주	교회소개	① 담임 목사의 환영의 인사 ② 교회의 역사 소개하기 ③ 다문화가정을 향한 교회의 비전 ④ 성경에 근거한 사역 이유말하기	25분
3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① 간증자를 1명 세워 간증을 갖게 한다. ② 교제 및 교육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함께 알아간다	25분
4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① 간증자를 1명 세워 간증을 갖게 한다. ② 교제 및 교육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함께 알아간다	25분
5주	성도의 교2제	주안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공부한다.	25분

표 5. 교회 정착 연계 프로그램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행9:26-28)

본문 말씀과 같이 바나바 사역과 오이코스 전도 방식을 활용하는 교회선교 전략가운데 한국학교 교사와 교사 전문 전도 사역자와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학부모 식사 초대 및 부활절 크리스마스행사에 초청하여 예배 후 다과와 선물증정을 통해 1:1 학무모와 전도 사역자를 만나게 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취한다, 학부모 전도 우선 순위로 진행한다. 즉 한국학교는 교회 전도 사역자와의 연결 고리이다.

---

[166] http://cafe.daum.net/choihs123/9vdl/67?docid=4055746449&q=%B1%B3%C8%B8%C1%A4%C2%F8%C7%C1%B7%CE%B1%D7%B7%A5(accessed June 7, 2012).

현재 한국학교 교사 3명 모두 전도 훈련을 받은 사역원으로써 전도를 통한 새신자 정착을 성공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다. 수업 후에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데리러 오는 시간과 같이 자리를 마련하여 학생의 수업태도나 한국어 숙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 오늘 일상과 학생들의 수업시간의 자세들을 서로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또한 1:1 학부모 상담을 1달에 한번 마련하여 대화를 하고 식사에 초대를 한다. 이로 인하여 학부모 1명은 현재 저희 교회의 출석을 하고 학국학교 보조교사를 봉사하고 있다. 또한 다른 학부모는 자녀를 본 교회에 출석시키고 있고 한국학교 행사나 교회 행사에 적극 후원하고 있다.

5) 평가

(1) 연구 반원 개인의 변화

본 교회 연구반원들은 모두 교사이다. 이전의 교회 교사의 자세와 한국학교에 대한 인식이 본 논문을 통하여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선교적 관점이 미약했다고 본다. 하지만 연구반원 전원 이번 세미나와 논문의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성경적 고찰을 통하여 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숙고하는 시간이 되었고, 한국학교를 바라보는 시선과 교회학교에 교육프로그램을 위하여 좀 더 준비하고 교사의 영성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확고히 하며 나아가는 한다는 깨달음을 이 논문을 통하여 새롭게 심사숙고 하게 되었다.

또한 교회한국학교를 통한 문화적 선교, 전도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였다. 교회학교의 교사는 일반교육선생님과 달리 복음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더욱더 개인의 믿음생활도 성경묵상을 통한 영성개발을 통하여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연구반원 개인의 변화 인터뷰 내용 -

질문: 이번 논문의 연구반원으로써의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을 말씀해주세요.
손영란 교사 *처음에 한국학교를 시작하면서 평신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 기도로 시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으며, 교재도 보충교재로 성경을 인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처음부터 아이들이 잘 따라주지 않아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으나 수업을 시작하기 전 체조 등 재밌는 몸 운동을 통하여 아이들의 긴장과 흥미유발을 하여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되게 하였다. 지금은 수업을 하기 전 아이들에게 기도란 자연스러운 수업 중의 일부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또한 아이들에게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한글학교를 통한 선교를 시작하였으며, 아이들이 한국말로 기도를 함으로써 가정에 가서 실천을 하며 부모들에게 교회한글학교의 장점을 잘 말씀드렸다.* *아이들에게 한국학교를 통해 선교를 한다는 것이 선생님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많이 깨닫게 된다. 혼자의 힘으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욕심이며 아이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도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지 않으면 결코 진정된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것을 한국학교 교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교훈을 얻게 되었다. 아*

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글을 배우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지금도 기도로 준비하며 교재를 통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우리 한국학교를 통해 복음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씨앗이 심어지길 기도하고 있다.

조오남 교사

먼저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이번 기회로 많은 깨달음이 있었지만 학부모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다. 사실 전도하려고 마음으로는 노력을 했지만 내 자신이 왠지 자신이 없었다. 늘 주저하고 학부모 눈치를 봐왔다. 하지만 목사님이 내 자신이 평신도 사역자 전도자라는 가르침에 좀 놀라긴 했다.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과정과 또한 몰랐던 선교관점을 이번 논문을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막연하게나마 깨달은 면이 생겼다.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이 다른 반에 비해서 많고 제일 어린 아이들이라 학부모와의 관계가 밀접하고 가깝다. 하지만 한번도 전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종교적인 소신을 말해본 적이 없다. 그저 시작할 때 시간되는 기도해주고 바쁘면 넘어가곤 했다. 교회학교 스케줄을 목사님한테서 배우고 익혔지만 잘 안되었다. 내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해야하나? 하지만 점점 익숙해져가고 있고 학부모님과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친구가 된 사람도 있다. 집으로도 초대하고 학예회 발표나 추석 대행사 때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문을 서로가 열고 전도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다. 생각의 전환이 된 것 같다. 마음속으로 교사로써 선교적인 생각은 많이 해왔다. 하지만 시스템 안에서의 전략적인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하튼 우리 한국학교가 좀더 교회의 전도사역에 큰일을 감당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심유미 교사

학생들을 대할 때 사실 힘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날 간식 담당자인 나는 간식도 준비하고 가르치는 일이 사실 좀 힘듭니다. 우리반 아이들이 다 남자아이들이고 말

도 잘 안 듣는 아이들이라 더욱더 지친 적이 많아요.

만들기와 수업할 때 집중도 안하고, 식사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소리소리 지르며 뛰어다니고, 기도하자고 하면 장난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미나와 회의를 통한 평신도 선교자라는 입장에서 내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논문의 연구일원으로써 많은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 스스로 사역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사역임을 깨닫고 열심히 하는 모습 속에서 예전에 지친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긍정적인 선생님이 되어 가는 모습을 통해서 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기도하고 교회선교의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한국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느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미약하지만 더욱더 많은 학생들과 발전되어 나가는 한국학교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너퍼 킴벌만 교사

본연구의 연구반원이 됨을 감사합니다. 또한 교사 교육과 3번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한국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하려는 열정과 교회일원으로써 언제나 해왔듯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로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 선교적 관점과 선교적 교육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준비되어있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더 영적 생활과 기독교적 관점의 교사상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열정은 남다르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더욱더 열심히 가르치고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교회학교의 모범적인 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교회선생님과 평신도 사역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설문조사 분석내용

본 연구는 재외한국학교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제외한국학교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아름다운 한국학교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12.1부터 12월 22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배부된 설문지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작성 후 회부하였다. 설문지는 논문에 첨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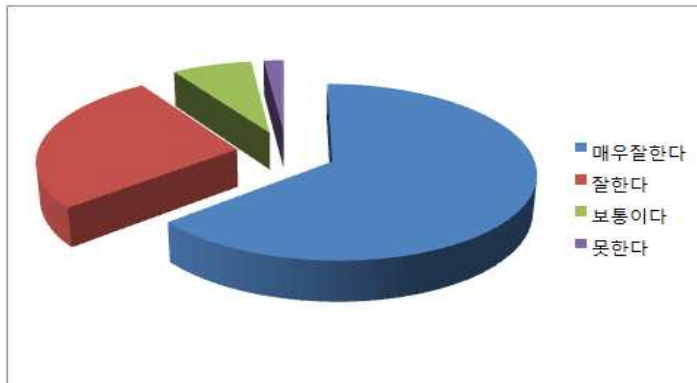



그림 5. 한국학교 학부모 교육 만족도 그래프

배부된 총 30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설문지는 30부로 100%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구체적 조사대상과 설문지 회수 현황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현재 아름다운 한국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

도를 조사해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분석그래프가 나왔다. 많은 문항이 있었지만 현재 한국학교에 대한 교육 만족도를 조사해 보았다.

(3) 연구 과제의 한계

교회 학교는 한국교회의 미래다. 그러나 교회학교에 대한 목회자의 무관심과 투자 부족이 주일학교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물론 교회의 규모나 사역을 어려움이 있고 소형교회이기에 사역과 지출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인식과 사고 목회적 방향마저 어린이교육과 선교 교육에 대한 신학적 안목이 부족한 상황이고 인식변화와 함께 인적/물적 투자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한국교회 어린이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교회의 50% 이상이 어린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형교회는 더욱 심각하다. 이민교회에서는 거의 방치가 되고 있는 교회가 많다. 이민교회의 특성상 영세하고 소규모적이고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작은 이민교회들이 대부분이다. 주일학교 교육과 예배 중고등부 예배와 전문 사역자가 없고 교육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교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한다면 교회 부흥이 전혀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오늘날 교회학교에서는 위기가 아니라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교회학교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관심과 대책마련은 사실상 전무하다. 교회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정확한 통계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교회학교 관계자들은 주일학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애정, 투자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

고 있다.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목회자의 무관심과 그릇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장년 전도와 목회에 치중한 나머지 어린이 사역을 등한시하고 있다. 주일학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다. 교육부서에 투자하는 재정과 인원을 구제나 전도 등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보다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시안적인 시각에 불과하다. 교회학교가 붕괴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교회학교에 대한 근시안적 시각이 팽배하다 보니, 목회계획에는 교회학교부흥의 시급성이 결여되어 있고, 교회학교를 나이 어린 전도사나 신학생 정도에게 맡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교회학교를 부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래 초기에는 교회교육이 학교교육을 책임졌다. 전국에서 전통을 자랑하는 기독교학교들이 이 시기에 세워졌다. 하지만 어느새 교회교육은 발전하는 학교교육에 비해 항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때문에 교회의 교회학교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결과에 이르렀다.

또한 학교나 학원 등 일반 교육은 그 시설이나 교재들이 발달하고 선진화된 반면에 교회학교는 관심을 끌 만한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교육공간과 시설도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가 교육시설이 태부족한 상태이다. 옛날에는 예배드릴 예배당 하나로 족했고, 그 외에 일부를 주일학교가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교회학교 교육이나 학생모집에 기대를 가질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교육자료 및 교육기재 문제의 미비도 지적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일반 공교육이나 사설학원의 학습 시설과 교육기재는 첨단을 걷고 있는 현실에서 여기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관심을 끌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또 개 교회의 상황에 맞는 교회학교 교육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이 일부에서 좋다는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도입해 활용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급변하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코드를 따라가기에 교회학교 프로그램은 이미 역부족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획일적인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넘어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임할만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 팽배한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 인성교육의 결여는 주일학교의 설 자리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성적과 경쟁에만 내몰린 학생들은 교회학교와 기독교교육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교회학교를 비롯한 신앙교육을 학교교육의 부차적인 요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나아가서는 방해요인으로까지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입시지상주의가 만연하는 한국의 교육상황에서 입시와 관련된 사교육과 시험에 주일학교교육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험생이 되면 자연스레 교회학교 활동을 뒤로하고, 입시가 마무리 될 때까지 교회학교 교육, 나아가 주일성수까지 예외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교육열이 점차 과열되면서 이러한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대상의 주일학교의 경우에도 대다수 학생들이 공교육 이외에 평균적으로 3-4개의 사교육을 병행하고 있어 악순환의 고리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주일학교의 성패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중요한 요

인 중 하나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교사양성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다.

교회교육 전문가들은 먼저 교회가 교회학교 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한 훌륭한 교사를 가지고 있는가? 교회는 교사양성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현재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질 만큼 잘 훈련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학교 교사들이 체계적인 훈련과 검증과정 없이 목회자의 주관적 판단과 시간적 수행가능여부에만 의존해 선발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목회자가 교사교육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양성에 만전을 기하는 사례도 없지는 않으나 대다수의 경우 전문지식의 부재가 교회학교성장의 실패에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주일학교 침체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교사들의 헌신의 결여다. 언젠가부터 신경이 많이 쓰이는 주일학교 교사직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사를 임명해도 마지못해서 하거나 책임감 있게 헌신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와 함께 교사의 복수직분 수행 또한 교회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회 내에서 교사 직분과 함께 청년회활동, 성가대, 반주자 등 다른 직분을 겸하고 있어 주일학교교육에 실질적인 역량을 집중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교회학교의 침체는 목회자들의 근시안적 인식과 교회의 투자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적투자가 전혀 없고 물적 투자는 더욱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사회 문화에 아이들을 빼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예

견되었던 문제이다. 교육장소의 부족, 낙후된 교재, 교사교육의 체계 부실, 헌신적인 교사의 부족 등은 주일학교의 인원감소로 나타났고, 학교교육과 학원 등 사교육의 변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학교에 대한 새로운 점검과 획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과 시행, 주일학교 교사들의 사명감 회복 등이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의 교회학교를 살리는 길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 그루의 묘목을 심는 심정으로 교회학교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 변화와 인적/물적 투자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146]

3. 연구과제 수행 이후의 변화

1) 개인 신앙의 변화

(1) 설교자

설교자의 인격은 평소의 사람됨과 연결되어 있다. 설교자는 일주일 전부, 삶 전부가 설교에 반영되는 것이다. 설교자가 6일의 삶을 세속적으로 산다면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며, 은연중에 교인들에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도록 방조하거나 고취하도록 하게 된다. 설교자의 메시지는 삶으로 알 수 있다. 설교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

146크리스챤월드모니터,http://www.cwmonitor.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74(accessed February 2, 2013)

한 것은 경건의 삶이다. 목회자로 부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사와 소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경건생활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경건과 학문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다. 경건이 바탕이 된 신학만이 옳은 신학이 될 수 있다. 경건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경건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며, 하나님을 모신 신앙공동체의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을 가지려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런 경건이 없이는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없다. 영적지도자는 선거나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누가 인정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많은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령성은 교역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특색이니, 이것이 사상과 감정과 생활의 전 영역에 눈부시게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훌륭한 두뇌나 예민한 감성, 여러 가지 정당한 이해 등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나라의 임재를 준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 기도가 없으면 감동과 지식이 있을지라도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없다. 사람을 설득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수 있는 설교자는 끊임없이 골방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부서져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성령은 말씀과 기도로 설교자를 격려하고 힘을 준다. 학식은 강단에서 빛을 내고 웅변은 강단에서 사람들을 감동할 수 있으나, 만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감화는 사람의 이성을 충족시킬지는 모르나 영적인 깊은 곳에 이르지는 못한다.

한편 설교자는 한평생 연구하는 학자이어야 한다. 설교자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경건서적을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설교자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만 한다. 설교자는 학문하는 전문가가 되어야만 한다.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번 논문을 통해서 더욱더 개인 성장의 발전가운데 설교자로써의 발전 가능성과 개인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2) 상담자

상담에 대한 개념과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상담자들은 종전에 비해 한층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화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상담자의 자질은 매우 중요하다. 상담자의 자질이 곧 내담자의 문제해결 및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상담자의 자질에는 전문적 능력과 사람됨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두 가지 자질에 대한 변화목표를 세우고자 한다.

전문적 상담자가 상담분야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훈련하여 자기 자신의 이론적 위치를 다지는 것을 말한다. 상담자에게 있어서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는 길은 먼저 상담에 관한 자신의 이론적 틀을 개발하는 것이다. 만약 상담에 관한 아무런 기반도 없이 상담에 임하는 상담자가 있다면 그는 전문가 일 수 없으며, 오히려 내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격적 상담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기술만 지녔다고 하여 상담자의 자질을

모두 갖춘 것은 아니다. 효과적인 상담관계의 발전에는 상담자의 사람됨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담자들은 바람직한 인간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Belkin은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을 자기이해, 타인이해 및 타인과의 관계 발전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① 자기이해: 안전감, 신뢰성, 용기

② 타인이해: 너그러움, 비판단적 태도, 민감성, 공감력, 객관성

③ 타인과의 관계발전: 진실성, 비지배성, 경청력,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등을 각각 하위 내용으로 들고 있다.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을

① 인간에 대한 선의와 관심

② 자신에 대한 각성 ③ 용기 ④ 창조적 태도 ⑤ 끈기 ⑥ 유머감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개발코자 상담 자료와 책을 읽고 내담자의 피드백을 받고자 한다.

(3) 문화 사역자

문화선교의 사명은 한국교회를 사회에서 책임성 있게 문화를 변혁시키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보다 다양한 문화선교사역을 위하여 문화사역자를 지속적으로 교회가 발굴하고 후원하며 지지해야 한다.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변혁시킨다는 복음의 본질을 실천해야 하며, 문화사역자 역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오늘날 선교적 사명을 갖고 바른 신앙관으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확산하여 다양한 문화이슈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교회와 지역 간의 문화선교사역의 공유로 문화선교 연대의식이 필요하며 건전한 문화선교 전략수립과 함께 입체적 문화선교를 네트워킹해야 한다. 또한 문화선교 단체들이 서로 연대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각 기관의 고유한 전문적 문화선교를 진행하면서 각 단체 간 문화선교의 영적 극대화와 발전을 위한 공동세미나 등 문화선교전문화 등 상호보완 관계를 이루는 문화선교벨트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선교 리더십의 공동체 형성 의식과 실천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몸된 문화선교공동체의 발전방향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알기 위해 서적을 읽고 서평을 하며 문화평론에 대한 간단한 글쓰기를 하며 제3자의 논평을 피드백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한다.

다문화 가정을 통한 학부모와의 관계, 학생과의 의사소통의 문제 언어의 어려움 등 많은 문화를 포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사역자가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이번 논문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2) 교회 한국학교를 통한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

먼저 본 교회가 지역교회의 정체성확립이 큰 영향을 주었다. 출라비스타 지역

의 아름다운교회의 지리적 근접성을 토대로 멀리 큰 교회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교회에서 한국학교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샌디에이고의 지역커뮤니티 사이트(SDSARAM.COM)[147]를 통해 한국학교를 알리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출라비스타에 있다는 것과 멀리 나가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서 한국학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아름다운 교회가 한국학교를 통해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매주 1명에서 2명씩 새 신자가 아름다운 교회를 찾아오고 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된 계기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학교 광고를 보고 왔다고 한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한국 사람들은 자녀의 교육을 교육적으로 관심이 있고 잘 가르치고 체계적인 교회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2012년 8월에 개강을 한 본 교회 한국학교의 역사는 너무나 짧다. 하지만 현재 계속 성장하고 있고 새신자 정착도 꾸준하다.

그 중 한 새신자는 현재 한국학교 보조교사로 섬기도 있다. 주일학교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행사도 한국학교 학생들의 준비와 발표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고 식사에 동참하고 담임목사님과 계속적인 신앙적인 상담을 하고 있다.

출라비스타 이민사회는 다문화 가정이 많다. 현재 본 학교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9명이다(30명 기준). 문화 교류에 있어서 본 한국학교의 25-30%는 다문화가정에서 보내진 학생들이다. 지역적 특성으로 멕시코와의 교류와 회사 주재원들이 많은 관계로 다문화교류가 이루어졌고, 특히 한국인 부모와 멕시코인과의 결혼으로 학생

---

[147]에스디사람닷컴,http://www.sdsaram.com/(accessed October 14, 2012).

들의 언어 환경이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더욱 복잡한 문화적인 가정이 많이 있다. 출라비스타에서 15분여 떨어진 멕시코의 티후아나 지역의 무역거래 도시에 한국기업과 지사업체가 많아 한인거주가 현재 더욱더 커지고 있고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사용은 이곳 지역의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부모들은 영어교육에 집중하는 가운데 모국어 교육을 여러 가지 이유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자녀들이 성장하여 부모와의 언어교류와 상호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가운데 심각한 가정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본 학교의 학생 중 한 학생은 1학기 등록 후 2학기에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멕시코인 인데 아버지가 늦게까지 일하여 한국어 교육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을 어머니가 책임을 지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어머니가 한국어 학교 숙제를 가르치지 못하고 학생도 너무나 힘들어하여 한국어 학교 출석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요일 날 주일학교 교회 출석을 통해서 한글을 가르키고 있고 토요일 한국학교로 정착시키려는 노력 가운데 있다.

다문화 가정한국어를 교육시키는데 많은 학부모님과의 상담가운데 이들 다문화 가정은 많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학부모님들이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는데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학교가 문화교류 역할 중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 한국인 부모나라의 정체성을 이해시키고 언어교육을 통하여 부모와의 유대관계도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2012년 11월 학부모 초청 잔치를 준비하여 장을 열고 자연스럽게 초청 잔치 가운데 유대감을 형성하고 좋은 시간을 준비하여 대화의 장을 열어 전도의 접촉점을 더

욱 확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일단 학부모 학생 등록을 통한 문화 선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전도의 다리역할 담당하는 한국학교는 교회의 부속기관으로써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온다. 위에서 서술한 것 같이 교회 이미지 쇄신과 지역사회 기여를 하고 자연스러운 학생 교육 상담을 통해서 부모와의 상담으로 이어져 믿음상담과 자녀 진로 상담 기도요청 등등 자연스러운 선교의 장이 열리고 전도를 하는데 보다 열린 자세로 진실된 상담이 오고 간다. 더 나아가 전도의 결실도 생기고 등록을 하는 학부모와 학생이 생긴다. 이에 가까운 지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교육을 제공해주는 교육기관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교육의 장과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한인 사회에서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에 교회 이미지 쇄신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정리를 통해서 한국학교를 통한 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은

① 교회의 지역홍보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민교회에서 교회를 알리고 전도하는 일은 중요하다)

② 한국학교 학생을 통해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흥했다.

③ 교사들이 평신도 교육사역자라는 사명이 배가되었다.

④ 한국학교를 통한 학부모와의 만남과 상담을 통해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소개받았다.

⑤ 지역 한국학교 연합을 통한 행사로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였고 교회연합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와 같이 교회의 부흥과 선교적 전략에 크게 기여하였다.

V. 결론

1. 미주 한인교회 한국학교를 향한 제언

오늘날 교회교육은 위기 속에 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방을 통한 프로그램에 짜 맞추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란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실패한 교육 제도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본다.
교회 교육인 주일학교 교육 특별 프로그램인 방과 후 학교, 한글학교, 음악교실, 문화교실 등 많은 것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준비의 부족과 모방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우리는 목표를 상실한 교육, 빈칸 채우기, 사소한 것들에 대한 추구, 지나치게 피동적인 학습 방법들과 함께 자라왔다. 이런 방법들은 너무나 뿌리 깊게 우리 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 그대로 하고 있다.
21세기의 교회교육은 기존의 교육방법과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의 조화가 있어한다. 지금의 교육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이용하는 교사들이 구시대적 사고와 열정과 사명감이 결여된 채 교육을 한다면 앞으로의 교회교육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무조건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교회교육을 해하고 주일학교의 부흥을 가로막는 요소는 제거되어야 하고 갱신되어야 한다. 그것이 방법론이 되었든지, 교사나 지도자들이 되었든지 간에 갱신되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래의 교회교육은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서 있다. 이 시기는 부족했던 지난날을 딛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으로 도약을 하거나 지금의 교육 시스템에 안주하여 미래를 망치게 되는 선택의 기로인 것이다. 이제 이 선택은 교사들과 담임교역자 그리고 교회가 짊어지고 풀어야 할 숙제이다. 어느 개인이 부르짖는다고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 교단을 떠나 한국교회 모두가 교육에 대한 경각심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될 것이다. 다른 민족들은 특히 일본이나 중국은 국가적 지역적으로 후원과 지원 학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학점도 인정이 되어 국가의 연계성과 전문화된 교사들을 통한 교육적인 우수성을 발전 시켜왔다.

한국학교와 이민사회도 구조변화를 통해 각 미주 연합회과 미주 교육원을 중심으로 부단한 노력과 교사전문성을 위한 교육 세미나와 자격증 제도 한국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적인 지원과 물질적인 후원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지만 교회 한국학교를 통한 교회적인 연합과 지원, 선교적 방법론에 입각한 행사와 전략이 개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교회 현실상 연합과 공조는 힘들고 개 교회의 자치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논문을 준비하며 나는 더 나은 교회교육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각 교단과 각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교육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 시대의 교회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였기에 사사기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된 것처럼 우리도 다음세대를 믿음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사사기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말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 말을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는 우리

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져야 하는 것이다. 더 나은 믿음의 다음세대를 꿈꿈으로 앞으로의 교회교육을 준비해 나가는 미래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교회교육 모든 문제와 대안의 결론은 현 교육이 변화해야한다는 것이고 교육의 변화는 교육자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교육이 수업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될 때, 교육자 역시 학습자 중심의 교육자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교육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교육하는 사람이다. 미래의 교육자는 사명감과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철저한 기초교육을 받은 사람이 임명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새롭게 전환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자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교육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모든 변화를 수용하고 교회 교육의 일관적이고도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며 이끌어나가려면 이를 전문적으로 교육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에 의해서 교사가 발견되고, 임되고, 교육되는 체제를 가져야 한다. 교회 교육은 지금까지 학교 교육의 모델을 따랐다. 열린 교육이 되지못하고 주입식 교육이 되었다. 내면화된 권위 구조에 종속시키는 교육에 그쳤다. 지금 모든 부분에서 새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148]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한국학교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이민사회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과 달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

[148]최대석,*교회교육의 회복과 그 대안*, 98교육정책세미나자료집(서울:장신대 기독교교육연구원,1998),40-42.

그렇다고 하여 국어 교육적 방법론이 참고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 언어학이나 국어학 역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제공해 주지만 이들이 곧바로 한국어 교육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지만 아직도 한국어 교육이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을 하나로 통일해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한국어 교육 목적 및 교육 여건에 따라 한국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한국어 교수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하며, 한국어 교육의 제반 여건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가 포괄하는 범주를 규정하는 것 역시 한국어 교수법을 결정하는 데 기초를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기에 한국교회와 교회 한국학교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 교회의 사역은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역은 전문화되고 있다. 교육과 상담 및 치료 등 전문지식을 습득해야하고 교회도 이제는 전문사역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목사나 전도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복합적인 시대에 우리는 사역을 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의 반영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교회교육은 회복하기가 어렵다. 전문화를 통한 선교적 전략을 준비해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Bibliography

1) 외국서적

A. G. Little, *Roger Bacom's life and words* : Oxford University press,1914.

Bacon, W. F. & Ichikawa, V. *Maternal expectations, classroom experiences, and achievement among kindergartener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uman Development,1988.

Cannal, M., & Swain, M.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tosecondlanguageteachinganatesting*,:Appliedlinguistics,1980.

Chae, K. M. K*orean American juvenile delinquency in relation to acculturation difference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Chicago,1990.

Chung, W. S., & Pardeck, J. T. *Treating powerless minorities through an Ecosystem Approach* : Adolescence,1997.
Coleman, H. L. K. Casali, S. B., & Wampold, B. E. *Adolescent strategies for coping with cultural diversit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2001.

David Smith & Barbara Carvill, *The Gift of the Stranger* (Grand Rapids, Wm. B. Eerdmans,2000.

Donald Ratcliff,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Barbara Wilkerson edt :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Birmingham, Alabama: Religious Education Press,1997.

Flores, J. *Childrearing attitudes of Hispanic parents and teachers of preschool and kindergarten children*. :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1986.
Golden, J. G. *Acculturation, biculturalism and marginality: A study of Korean-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CO,1987.

Han, M. S. *Social inter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 Louis University, St. Louis, MO,1986.

Hans Hoekendijk, *The Call to Evangelism*, Norman Good all ed., The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 Vol 39 ,1950.

Harro Van Brummelen,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Burlington: WELCH PUBLISHING CO,1998.

Hurh, W. M. *Comparative Study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A Typological Approach. San Francisco: R and E. Research Associates, Inc,1977.

Hurh, W. M, and Kim, K. C.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A Structural Analysis of Ethnic Confinement and Adhesive Adaptation.* Madison, NJ: \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ress,1984.

Hurh, W. M. *The Korean American dream: Immigrants and small business in New York Ci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1998.

Kim, H. L. *Aspects of the life context of high achieving and low achieving Korean children in American schools* :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1995.

Lee, J. S. *Socialization of Korea-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for academic achievement*: an ethnographic study. doctoral dissertation,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1995.

Lee, J. C., & Cynn, V. E. H. *Issues in counseling 1.5 generation Korean Americans*. In C. C. Lee & Richardson (Eds.), Multicultural issues in counselling: New approaches to diversity, 1991.

Letty M. Russell,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Philadelphia: TheWestminster Press, 1967.

Letty M. Russell, *Practicing Hospitality in a World of Difference and Danger* : The Princeton Seminary Bulletin Vol.24. No.2(2003.5)

Letty M. Russell, *Encountering the 'other' in a World of Difference and Danger* : Harvard Theological Review, Vol.99. No.4,2006.

L. Steinberg et al. *Ethnic Difference in Adolescent Achievement* : American Psychologist,June,1992.

Nicholas P. Wolterstorff, *Educating for Life: Reflection on Christian Teaching and Learning*(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2002.

Pyke, K. *"The normal American family" as an interpretive structure of family life among grown children of Korean and Vietnamese immigrants* :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2000.

Rovert Rosenthal and L. *Jacobson, Pygmalion in the Classroom,*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m,1968.

R. Selmam, *The Growth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New York: Academic,1980.

Scarcella, R., & Chin, K. *Literacy practices in two Korean-American communities. Research Report: 8.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Cultural Diversit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 Santa Cruz, CA,1993.

Seamands, A. *David. Healing of Memories. Wheaton IL*: Viotor,1985.

Strom, R. D., Daniels, S., & Park, S. H. *The adjustment of Korean immigrant families* :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Research,1986.

Yoon, In-Jin. *The social origins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from 1965 to the Present* :Papers of the Program on Population, Honolulu,HI,1993.

Yu, E. Y. *Korean bilingual education in sociological perspectives*. : Bilingual Resources,1980.

Yu, E. Y. *Korean communities in America: past, present, and future.* :Amerasia, 1983.

Yu, E. Y.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1989: Issues and prospects*. InH. C. Kim & E. H. Lee (Eds.), *Koreans in America: Dreams and realities*. Seoul, Korea: Institute of Korean studies, 1990.

Yoon, In-Jin. *The social origins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from 1965 to the Present* : Papers of the Program on Population, Honolulu,HI,1993.

S. Fowler, *Christian Educational Distinctives,* South Africa: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1987.

2) 번역서

Adams, E. Jay. *성공적인 목회사역*. 정삼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79.

Adams, E. Jay. *기독교 상담 교본*. 김용순 역, 서울: 보이스사, 1982.

Benner, G. Davie. *전략적 목회 상담*. 이정기 역, 부천: 예영 B&P, 2005.

Brother Lawrence.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윤종석, 서울: 두란노서원, 2004.

E. Reimer, School is Dead, 김석원 역,*학교는 죽었다* : 서울: 한마당, 1997.

Fraser, A. David. and Campolo, Tony. *신앙의 눈으로 본 사회학*. 강대기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 1995.

Hooks, Bell.Teaching to transgress : education as the practice of freedom, 윤은진 역,*경계선 넘기를 가르치기*,서울 : 모티브북, 2008.

Hooks, Bell.Feminism is for everybody :passionate politics,박정애 역,행*복한 페미니즘* 서울: 백년 글 사랑, 2002.

J.A. Comenieus, The Great Didactic of John Amos Comenius, 정확실 역, *대교수학*,서울: 교육과학사, 1987.

John Van Dyk, The Craft of Christian Teaching, 김성수 역, *가르침은 예술이다*,서울: IVP,1994.

JamesA.Banks,*다문화교육 입문*. 서울:아카데미프레스,2008.

John Bolt, The Christian Story and the Christian School, 이정순 역, *이야기가 있는 학교*,서울: IVP, 2006.

John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이홍우 역,*민주주의와 교육*,서울: 교육과학사, 1996.

Klaus Großmann & Henning Schr□er, Auf den Spuren des Comenius, 정일웅 역, *코메니우스의 발자취*,서울: 여수룬, 1997.

Letty M. Russell,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7), 정웅섭 역,*기독교교육의 새전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Mayeroff, Milton. *On Caring*. 이정기 윤영선 역, 부천: 한국상담신학연구소, 2009.

May, G. Gerald. *Care of Mind Care of Spirit*. 노정문 역, 서울: IVP, 2006.

Nathan Glazer,*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We are all multiculturalistsnow)*, 서울: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서종남,최현미 엮음,2009.

Oden, C. Thomas. *목회신학*. 오성춘 역,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국, 2003.

Sanders, J. *Oswald. Spiritual Leadership*. 이동원 역, 서울:요단출판사, 2004.

Wise, Carol. *영혼을 돌보는 목자*. 이승기 역, 서울:도서출판 세복, 1998.

앤더슨, 키이스. and 리스, 랜디. *영적맨토링*. 김종호 역, 서울: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1.

엘머L. 타운즈, *전도와 교회교육*, 서울:무림출판사, 1991.

3) 국내도서

김근수,신청기(역). *기독교교육사*. C. B. Eavey.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소,1986.

김중섭,*한국어 교육의 이해*. 서울:한국 문화사,2008.

김희자,*창의적인 기독교 교육방법*.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2004.

권택조,*교사론*. 서울:생명의 말씀사,2001.

권수영, 김필진, 박노권, 박민수, 신명숙, 안숙모, 이관직, 이정기,*목회상담입문*. 서울:도서출판 목회상담,2007.

권율복,*어린이는 작은 어른입니다.* 서울:도서출판 꿀과 추,2000.

민경배,*목회신학원론*. 서울:기독교서회,1973.

박원근,*목회심방의 이론과 실제.* 서울:대한기독교서회,1997.

반피득,*기독교교육.* 서울:대한기독교서회,1999.

복음주의 실천신학회,*복음주의 실천신학개론.* 서울:도서출판 세복,2002.

정정숙,*기독교교육학.* 서울:도서출판 베다니,1997.

송삼용,*교사는 또 다른 목회자.* 서울:작은 행복,2000.

장기순,*어린이 전도.* 서울:기독교 문서선교회,1982.

장태진,*한국말 공동체의 연구: 거시 사회언어학 이론.* 서울:영락,2004.

이덕희,*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랜덤하우스 중앙,2003.

이명희,*전도학 개론.* 서울: 보이스사,1989.

이동재 외,*한인학교의 한국어 연구* :하와이대 출판부,2002.

윤인진,*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2004.

요하난, K. P,*다가오는 세계선교의 혁명,* 서울: 죠이선교회,1990.

유성준 저,*참된 교회를 이끄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 서울: 평단,2006.

오인탁 외 공저, *위대한 교육사상가들1.* 서울: 교육과학사,1996.

최용재,*영어권 문화의 교육,호남영어교육학회 영어교육총서 3.* 서울: 한국문화사,1999.

4) 단행본

권덕원,*다문화주의 음악교육론과 국악교육*. 부산:음악과 문화 2호,2000.

김경근,*미주 한인의 민족 교육관 연구*. 비교교육연구.제 15권,2005.

김성수,*학교 및 학교교육에 대한 성경적 조망*, 통합연구 통권13호, 통합연구학회,1991.

김용만. *외국제화 사회에서의 해외한국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정책연구과제보고서*,2001.

박상진,*한국교회의 영적부흥과 리더십*. 제1회 소망신학포럼(강연3),2004.

이선근. *재미교포의 한국어 교육.* 서울:이중언어학회 333호,2007.

이종서,*재외국민교육 현황과 발전방향. 제1호* :국제교육진흥원,1993.

진동섭,*재외동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 인적 자원부,2003.

윤인진,미국으로의 한인 이주와 이민가족의 세대갈등. 재외한인학회,2000.

이덕희,*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랜덤하우스 중앙,2003.

최규용,*학부모회를찾아서남가주밸리학국학교*.미주지역한국일보,2007.

최낙복,*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태조사 연구: 로스엔젤레스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말학회 2008.

최대석,*교회교육의 회복과 그 대안*, 98교육정책세미나자료집. 서울:장신대 기독교 교육연구원,1998.

최은수,*재외동포 교육과 이를 위한 본국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고찰:* 재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1998.

최태성, *루터의 교육사상.* 루터연구12,1997.

5) 논문

김광집,*심방과 사귐공동체-한국교회 목회심방의 문제점과 개선*, 교회갱신대화모임, 1993.

김경화,*재외 한국학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행정 및 고등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2012.

김현주,*미국 조기유학 청소년의 적응과정 연구: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7.

신영순,*니콜라스 월터스톨프의 기독교교육 사상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4.

정선희,*다문화 교육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7.

정미숙,*지역교회 어린이 선교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연구(온누리교회 주일학교를 중심으로).*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9.

김준희, *재외한국학교의 교육 실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6) Website

http://blog.naver.com/ibs5?Redirect=Log&logNo=80094524053

http://www.gosdkorea.com/dg/view.php?&ss[fc]=1&bbs_id=area&page=4&doc_num=348

http://www.koreatimes.com/article/359952.

http://www.sdsaram.com/

http://cafe.daum.net/choihs123/9vdl/67?docid=4055746449&q=%B1%B3%C8%B8%C1%A4%C2%F8%C7%C1%B7%CE%B1%D7%B7%A5

http://blog.daum.net/kulturundtheologie/8005103